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2000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cality of Je-ju Island
and Its Application to Contemporary Architecture
- on the basis of investigation of traditional houses -

建 築 學 科

康 蓮 眞

2001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cality of Je-ju Island
and Its Application to Contemporary Architecture
- on the basis of investigation of traditional houses -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년 1월

梨花女子大學校 科學技術大學院

建築學科 康 蓮 眞

康 蓮 眞 의 碩 士 學 位 論 文 을 認 准 함

指導教授 강 미 선

審査委員

이 진 원

윤 재 신

강 미 선

梨花女子大學校 科學技術大學院

감 사 의 글

삶은 연속적이지만 또한 단락지음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늘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고 다시 언젠가는 단락을 지어야 하는... 두 해동안 대학원이라는, 작지만 큰 울타리 안에서의 생활도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만큼, 그리고 제 열정만큼 많은걸 이루어 내지는 못했지만 이 작은 논문이 그동안의 제 자취와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소중한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는 것 또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한없이 부족한 저를 자상하게 지도하고 이끌어주신 강 미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문의 길도 삶의 길도 끊임없는 스스로의 문제 제기와 그 해결의 과정임을 몸소 깨우쳐주시고 늘 저희를 이해하려 애쓰시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항상 학문에 대한 열정과 인자함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신 윤재신 교수님과 이 진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쓰는데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수맥회' 선배님들과 'Dimension' 작업실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마치는 그날까지 기쁨과 슬픔 그리고 고통까지도 함께 했던 미라선배와 윤정이로 인해 지난 2년이 넉넉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의 뒷일들을 처리해주고 논문으로 인해 예민해진 선배들을 위해서 마음 고생했을 중진이와 난주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99년 추운 봄날 함께 대학원에 진학했던 대학원 동기들 여러분 모두와 논문 막바지에 정신적으로 많은 힘이 되어준 정아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며칠동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은 강추위에 마음까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실에서 바라다보이는 산등성이에 고즈넉히 자리한 집들은 너무나 평화로워보였고 바로 앞의 왜소한 소나무들은 그 향상된 푸르름과 고요함으로 삶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봄이 올 무렵이면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목련의 아련함과 뜻모를 흥분으로 설레게 하던 벚꽃의 흥남림, 무더운 여름날 오르막길을 힘들게 오르던 기억, 여기 저기 보석처럼 박혀 빛나던 가을 단풍과 손대면 곧 바스러질 듯하던 겨울의 앙상한 나무까지, 2년 동안 함께 했던 이화의 정경은 어딜 가나 늘 그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논문으로 또 제 인생의 한 자락을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삶의 기회는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에 무수히 묻혀져 있고 그것들을 들

취내는 것은 아주 자그마한 ‘용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늘 어떠한 결정앞에서 머뭇거리던 저를 그 용기로 변화시키고 타성에 젖는 삶을 거부하며 삶의 순간순간에 치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급함에 매이지 않는 여유로울 수 있는 저이고 싶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나에 대한 확신이 무더질 때 늘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친구 선자와 별이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삶에 있어서 도전의 의미를 알게 해줬던 큰 언니와 형부, 언제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내 고민을 같이 고민해주던 연미 언니, 내 신경질을 묵묵히 받아주었던 연속 언니와 동생이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막내 경환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삶’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을 때, 그 가운데에 있으셨던, 성실하고 항상된 모습으로 많은 어려움과 삶의 굴곡을 넘어오시면서도 늘 저희 다섯 남매에게 꿈과 미래를 열어주셨던, 그리고 삶이란 곧 ‘희망’임을 당신들의 모습으로 말해주셨던 아버님과 어머니께 끝없는 감사를 드리며 너무나 부족하지만 논문을 두 분께 바칩니다. 지금의 ‘저’는 바로 두 분이십니다...

2001년 1월 연구실에서...

목 차

목 차	i
표 목차	iii
그림 목차	iv
국문 초록	vi
제 I 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목적	2
제3절 연구방법	3
제 II 장 지역성과 주거형태	4
제1절 지역성과 주거형태의 개념	4
1. 지역성	4
2. 주거형태	4
제2절 주거에서 지역성의 표현	5
1. 자연환경의 수용과 조화	5
2. 역사와 전통의 수용	5
3. 문화적 배경의 도입	6
4. 물리적 맥락에 적응	7
제3절 전통민가와 지역성	7
제 III 장 제주도 전통민가와 지역성	8
제1절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	8
1. 자연환경	8
2. 인문사회 환경	9
제2절 제주도 전통민가의 일반적 고찰	11

1. 배치	11
2. 공간구성	14
3. 의장적 요소	21
제Ⅳ장 다른 도서 지역 전통민가와의 비교	25
제1절 평면유형별 비교	25
1. 우리나라의 전통주택의 평면구성 분류	25
2. 홑집	26
3. 겹집	31
4. 제주도 전통민가의 평면구성 유형의 특징	36
제2절 공간요소별 비교	36
1. 평면구조와 배치	36
2. 공간구성	37
3. 의장요소	42
제Ⅴ장 제주도 지역성의 앞으로의 건축에의 적용	47
제1절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 종합 논의	47
1. 전통민가에서 보이는 제주도 건축의 지역적 특성	47
2. 제주도 현대건축의 사례고찰	47
3. 소결	54
제2절 제주도 현대건축에의 적용	55
1. 배치	55
2. 공간구성	55
3. 의장요소	56
제Ⅵ장 결론	59
참고문헌	70
ABSTRACT	72

표 목 차

[표 1-1] 연구흐름도	3
[표 4-1] 평면유형의 분류	25
[표 6-1] 제주도 현대건축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	62

그림 목 차

[그림 3-1] 한거리집	12
[그림 3-2] 마주앉은 두거리집	13
[그림 3-3] 모로앉은 두거리집	13
[그림 3-4] 마주앉은 세거리집	13
[그림 3-5] 모로앉은 세거리집	13
[그림 3-6] 상방마루	15
[그림 3-7] 정지	16
[그림 3-8] 고향	17
[그림 3-9] 퇴	17
[그림 3-10] 굴묵어귀	17
[그림 3-11] 긴 올래	18
[그림 3-12] 올래에서 보이는 안거리	18
[그림 3-13] 자연스럽게 휘어진 올래	18
[그림 3-14] 안뒤	19
[그림 3-15] 놀굽	19
[그림 3-16] 통시	20
[그림 3-17] 제주 전통주거의 구성	20
[그림 3-18] 풍채	22
[그림 3-19] 외부의 담	22
[그림 4-1] 울릉도 김삼룡씨가	27
[그림 4-2] 원산도 김수남씨가	27
[그림 4-3] 보길도 최시출씨가	28
[그림 4-4] 추자도 김도삼씨가	28
[그림 4-5] 흑산도 이유복씨가	28
[그림 4-6] 거제도 옥원철씨가	29
[그림 4-7] 남해도 김씨가	29
[그림 4-8] 백령도 이보배씨가	34
[그림 4-9] 백령도 김문찬씨가	34

[그림 5-1] O씨 주택 평면도	48
[그림 5-2] O씨 주택	48
[그림 5-3] 과원주택	48
[그림 5-4] 연동주택 외관	49
[그림 5-5] 연동주택 1층 평면도	49
[그림 5-6] 연동주택 캐노피	49
[그림 5-7] 현씨주택 외관	49
[그림 5-8] 현씨주택 평면도	50
[그림 5-9] 이씨주택 외관	50
[그림 5-10] 이씨주택 외관	50
[그림 5-11] 이씨주택 평면도	51
[그림 5-12] 탐라도서관	51
[그림 5-13]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전면	51
[그림 5-14]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52
[그림 5-15]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배치도	52
[그림 5-16]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입면도	52
[그림 5-17]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의 중정	52
[그림 5-18] 기당 미술관	52
[그림 5-19] 놀의 경관	52
[그림 5-20] 한국전통 호텔 씨빌리지	53
[그림 5-21] 국립제주박물관	53
[그림 5-22] 제주도 방사탑	54
[그림 5-23] 탐동 해변공연장	54
[그림 5-24] 핑크스 골프클럽 전체외관	54
[그림 5-25] 핑크스 골프클럽 전면	54

국 문 초 록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축에 대한 다원론적인 접근은 그동안 근대건축이 양산해낸 폐해들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근대건축이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는 인류가 발견해낸 새로운 기술과 재료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은 그 오만한 자신감에 있었다. 특정지역과 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건축의 의미의 상실을 초래했으며 인간 소외의 문제를 낳았다. 서로간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편적’이라는 미명아래 획일적인 문화와 사고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근대건축’을 찬양하지 않음은 그것에서 우리가 얻은 것보다는 더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원론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현재의 건축 담론의 모습은 다소 혼돈스런 인상까지 준다. 그 중 하나의 흐름이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는 ‘제주도’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인문·사회학적으로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지역에 대해 ‘지역성’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지역성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진 그 지역만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전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에 대한 논의와 그것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성에 대한 논의의 출발을 전통민가에서 시작하려고 한 것이다. 무엇보다 민가건축은 환경에 대한 정직한 대응 내지는 적응의 산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지역성을 논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제주도 전통민가를 통해서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을 논의하고 그것의 현대적 적용에 필요한 계획요소들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은 자연환경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에 접근하였다. 특히 다풍지대로서 ‘바람’이라는 기후요소는 제주인들의 삶과 생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러한 제한적인 요인들을 극복하고자 했던 제주인들의 슬기와 의지가 전통건축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제주도 전통민가 건축은 남단데 위치하면서도 평면구조에 있어서는 겹집구조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상방마루’라는 남방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구성을 보면 올래(도입부)-올래목(전곡부)-마당(발전부)-안뒤(종결부)라는 리

들의 독특한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다른 도서지역에 비해 철저히 별동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내부공간을 살펴보면 개방적인 요소들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많은 특징적 요소들의 기저에는 기후적인 요인들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제주도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지역성의 현대적 적용은 앞으로 공간에 대한 진지하고도 다양한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건축어휘들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이 그것의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근대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은 이미 있어왔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성, 지역주의에 관한 얘기도 수없이 논의되어져 왔다. 모더니즘은 전 세계에 보편적인 문화와 사고를 요구했고 그것은 어느 정도 현실로 이루어진 듯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준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다. 즉, 인간성 상실과 인간 소외의 문제, 환경오염, 그리고 건축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건축에 관한 문제까지 많은 폐해들을 양산해내었다.

그 중에서도 근대건축의 획일적 건축양식은 특정지역과 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건축의 의미의 상실을 초래했으며, 무질서하고 혼돈된 도시의 모습을 낳았다. 이러한 근대건축의 한계를 파악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건축의 양상은 다원론적인 다양한 경향을 보인다. 그 중의 하나가 지역성에 관한 논의인데, 이것은 근대건축이 각각의 다른 문화를 도외시하고 보편적인 문화의 추구에 대해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특성을 살리면서 그 지역환경에 맞는 건축을 함으로써 인간성 회복과 환경친화적인 건축에 대한 의미까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건축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원론적인 경향과도 맞물려 있다.

우리가 지역성을 논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체성 찾기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대라는 말은 언제나 서구를 내포하고 있고, 우리는 서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근대를 의식할 수 없다. 지역성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동안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형성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문화와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리 나라 중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인문 사회적으로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에 있어서도 분명히 다른 지역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제주도의 건축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획일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근래 들어 지역성 및 향토성을 살린 건축적인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2절 연구목적

Amos Rapoport는 지역성을 표출하는 결정적 요인은 환경요소들을 조작하는 주체의 생각이며 그 주체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가옥 형태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첫째이고, 다른 어떤 환경적 요인들도 그에 대한 수정적 요인으로 본다. 즉, 가옥 형태는 여러 가능성 속에서의 선택의 결과이며, 가능성이 많을수록 선택의 여지 또한 많지만, 인간은 여러 종류의 구조물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형태에 대한 불가피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이라는 것도 물리적인 요소(기후, 생산 기술 요인, 대지요인, 경제적 요인 등)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물론 근본적으로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회 문화적 요인의 측면에서 지역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회 문화적 요인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며,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 요소로 간추리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요소에 관심을 두되, 그 중에서도 기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도 건축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대 건축에 적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고찰해보려 한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적인 기후조건과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겨울에는 좀처럼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기온과 한여름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낮은 온도를 유지하지만 바람이 많고 비가 많이 내리는 해양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바람은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도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 요소이며 제주도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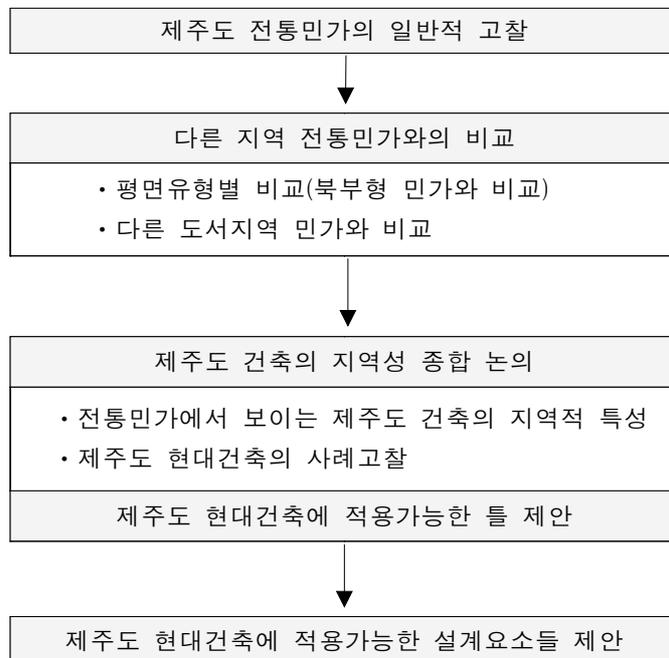
본 연구는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을 제주도 전통민가를 바탕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현대의 건축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을 정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제주도 건축의 특징요소를 현대 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건축적 어휘로 제안하여 앞으로, 지역적 특성이 살아있는 제주도 건축을 계획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나 제안을 하되 그것의 어떠한 일반적인 유형화보다는 그 가능성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태도이다. 즉, 그러한 요소들이 현대의 건축에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들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제3절 연구방법

제주도 주거형태를 결정짓는 요소중에서 자연환경적 요인에 중점을 두되 특히 기후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접근한다. 그리고 제주도 전통민가의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되 다른 민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접근한다. 먼저, 우리 나라 민가를 평면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북부형과 일반형 중에서 일반적으로 겹집구조라 일컬어지는 북부형 민가와 제주도의 민가를 비교한다. 이는 제주도 민가가 비록 따뜻한 남쪽에 위치하지만 겹집구조를 갖기 때문에 유사한 평면유형을 갖는 민가들끼리의 비교를 통하여 제주도만이 갖는 건축적 지역성을 고찰해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비슷한 자연환경과 기후적 스트레스를 받는 도서지역의 민가들과 비교를 한다. 다른 지역 민가들과 비교를 통해서 제주도만의 건축적 지역적 특성을 고찰하고 이들 중에서 앞으로의 제주도 건축에 적용가능한 설계요소들을 추출하여 제주도의 지역성을 살려 현대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요소들을 제안하려고 한다.

표 1-1 연구흐름도



제 II 장 지역성과 주거형태

제 1 절 지역성과 주거형태의 개념

1. 지역성

지역성의 개념은 우선 사전적 의미로서 ‘특정한 지점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적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특정장소 혹은 주변환경의 특징을 말하며, 장소를 가진다는 즉 공간에서 위치를 가진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한다. 즉, 사물의 상태나 위치 그리고 존재를 의미하며 장소 혹은 공간의 특정부분에 존재한다는 상태나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성의 개념은 주변환경이라는 물리적 요인과 무척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지역의 분류는 산맥이나 구릉, 하천등과 같은 자연환경의 특수성에 의하여 구분되는 자연적 지역과 정치·행정적 영역이나 역사적 영역, 동일한 방언이나 민속등으로 구분되는 인문적 지역으로 대별된다. ²⁾ 그리고 이러한 상이한 지역내에 나타나는 자연적 환경의 차이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역적 유기체로서의 성격은 지역마다 특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지역의 종합적인 개성을 지역성이라고 한다.³⁾ 이것은 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한계짓고, 그 지역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주거형태

각 지역마다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건축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풍토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지역의 자연환경적인 요인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요인은 주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건축은 그러한 환경에 끊임없이 대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유사한 자연환경조건을 갖는 지역이라도 인문사회적 환경의 규범이 다를 때, 혹은 인문사회적 규범이 같은 환경에서도 기후적 요소와 같은 자연환경의 차이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주거형

1) 이동수,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 지역성 표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11

2) 이상정, 한국남부해안지역의 지역성에 적응하는 주거건축의 적정계획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p.8

3) 이상정, 앞의 책, p.9

태가 생겨나게 된다. 즉, 각 지역은 그 지역마다 다른 환경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주거형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자연적,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역성은 주거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그 지역 특유의 풍토건축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풍토건축의 주거형태에 내재되어 있는 공간의 구성, 개념, 특성, 다른 계획요소들은 지역성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주거에서 지역성의 표현

1. 자연환경의 수용과 조화

건축을 규정하는 자연적 요소는 풍토적 특성으로, 기후, 지형, 지질, 건축용재료로서의 산물을 들 수 있으며, 인간이 자연에 적응해야 되는 한정된 환경의 제약조건과 미숙한 기술의 조건하에서 이들 요소는 건축형태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수한 지역적 미기후에 적합한 대지선정과 풍토적 재료의 선택 및 이러한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적응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모형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즉 풍토건축은 기후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기계적설비가 활용되지 않았으므로 인간이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안락한 은신처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창조되어져야 하며, 한정된 재료와 기술에 의해 성공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건축환경의 조절방법은 건축적인 해결방안으로 지역성이 표현된 고유한 건축형태의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 의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한 것이다.

본연구도 이러한 자연환경적 요인과 주거형태의 관계속에서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고 형성되어진 제주도의 지역성에 주목하여, 이를 규명하고 앞으로의 건축에의 적용가능성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2. 역사와 전통의 수용

건축에서 ‘역사’라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거주자와 세계와의 관계에서 시간요소를 말한다. 과거에 대한 연구는 사물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인식하는 데에 효과적이며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속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중 어떤 것과도 단절되어 살아갈 수 없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

진 민속 전통은 하나의 문화와 요구, 가치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다양한 정서와 가치 등이 직접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물리적인 형태로 전환된 것이다. 건축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의 공식화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상충되는 충동을 따른다. 즉, 건축도 인간과 그 역사의 복잡다단함이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건축은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습득된 지식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

3. 문화적 배경의 도입

문화란 매우 많은 의미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이상, 제도, 관습 등의 총체적 질서이며 이러한 질서 즉 특정문화가 지니고 있는 상징체계와 행동에 따른 결과의 일치로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지역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⁴⁾

주거환경은 사회 지리적인 배경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주택과 주거생활에는 거주자의 관습, 계층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듯 주거의 총체적인 모습은 거주자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를 반영한다. 보듀(Bourdieu)는 주거환경 내에서의 거주자의 문화적 성향을 정의하면서 주거공간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에 소속된 공간으로, 과거의 주거경험에 의해서 생긴 성향이나 관습이 체계화된 것이라고 하였다.⁵⁾

이러한 사회문화 중에서도 종교는 주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주택의 형태뿐만 아니라 평면, 공간배치, 좌향 등에 영향을 준다. 또한 경제적 요소의 중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타 여러 가지의 조건하에서도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주택의 형태와 규모, 성격이 달라짐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지배적인 요소를 들자면 거주자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이라고 하겠다. 그 사람의 주거환경은 종교적 신념, 가족의 구성, 사회조직, 생업, 개인의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 즉, 주거는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사회문화적 요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응적인 개념으로서의 물리적 요소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주거라는 것은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단순히 어느 한가지 요소만을 가지고 통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4) 허정아, 앞의 책, p. 20

5) 김경희 외3인(공역), 주거와 환경, 문운당, 1996, p. 98

4. 물리적 맥락에 적응

현대건축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테마중, 맥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맥락적 디자인의 접근 방법은 특정 지역의 재료와 시각적 구성요소들을 반영한 디자인 형상의 시각적 속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지역적이고 토속적인 건축의 구조와 형태질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 등으로 볼 수 있다.⁶⁾ 시각적인 것을 강조하는 ‘맥락적 건축’은 건축양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신축건물과 구 건물과의 조화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계방식은 건축가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어떤 경계가 한정되어 지역이 형성될 때, 자연적인 영역과 인간의 행위와 활동을 표현하기 위해 형성하는 영역이 구별될 수 있다. 맥락적으로 디자인하는 한다는 것은 이러한 연계방식을 건축적인 어휘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정 지역의 환경에 직접 관련된 시각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각적 단서는 직접 연결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얻어진다.⁷⁾

제3절 전통민가와 지역성

이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현재상황에서 위의 포괄적인 지역성의 개념과 주거형태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전통민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건축적 대안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특히 어떤 지역보다도 자연적 요소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의 지역적 특징은 전통민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따라서 제주도만의 고유한 지역성을 규명하고 그를 건축적인 어휘로 나타내는 데에 전통민가에 대한 고찰은 유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제주도 전통민가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고찰을 하고 다른 지역 전통민가와 비교를 통해서 제주도만의 건축적 특징과 지역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건축에 유용한 지역성을 살린 설계요소들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6) 허정아, 앞의 책, p. 22

7) 허정아, 앞의 책, p.23

제 III장 제주도 전통민가와 지역성

제1절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

제주도 주택건축문화에 영향을 준 환경인자로서 제주도 특유의 지리적 조건이나 기후 등의 물리적 요인과 지역적인 풍습, 민간신앙, 가족제도 등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자연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도 전통민가의 건축적 특징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그것의 현대적 적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연환경

(1) 지형 및 지세

타원형으로 된 제주도는 중앙부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300여개나 되는 기생 화산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섬의 중핵이 되고 있는 한라산은 사면이 완만한 경사로 내려와 해안에 이르고, 등고선은 산봉을 중심으로 거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경사는 남부가 북부에 비해 비교적 급한 편이어서, 이로 인해 해안선도 남부는 단애를 이룬 곳이 현저하며 평야는 동서 양단에 넓게 퍼져 있다.

토양은 화산회토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화산회토는 화산 분출물인 화산회, 화산사, 또는 화산벽을 모체로 생성된 토양이다. 유기물 집적량의 차이에서 암갈색토, 농암갈색토, 흑색토, 적황색토의 네 개의 토양으로 분류된다.

지표면은 투수성이 강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은 곧 지하로 빠져 해안선 가까이 가서 용출한다. 따라서 취락이 해안선 가까이 밀집하기 마련이다.

(2) 기후

제주도의 기후는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지만, 한라산의 영향으로 일기변화가 심하다. 연평균 기온은 제주시 14.7℃, 서귀포 15.5℃로 서귀포가 다소 높다. 연평균 습도는 제주시 73%, 서귀포 72%로 거의 비슷하지만, 4-9월의 연평균 습도는 서귀포 80%, 제주시 77%로 서귀포가 높다.

연평균 강수량은 제주시 1,440mm로서 한반도 남부와 비슷하며 서귀포는

1,676mm로서 국내 최대 강우지역중의 하나이다.

연평균 풍속은 제주시 4.7m/sec, 서귀포시 3.8m/sec로 제주시가 높다. 그리고 8,9월경 한두번 휩쓸고 지나가는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건축물에 피해가 많으며 최대 풍속은 제주시 36.1m/sec(NNE), 서귀포시 26.7m/sec(SSW)이다. 풍속 10m/sec 이상의 폭풍일수가 연중 114일이나 된다. 제주시의 겨울의 계절풍은 북서풍이 불고 여름은 남동풍이 불며, 서귀포시 겨울의 계절풍은 북동풍이 불고, 여름은 남서풍이 분다. 이처럼 해양성의 기후가 뚜렷한 제주도의 기후는 바람이 그 특성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을 기준으로 제주도의 월평균 일조시간은 162.7시간이고 서귀포는 181.3시간이다.

2. 인문사회 환경

(1) 풍습

제주문화의 특성을 형성하는 근본 요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고찰되고 설명되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 민속 분야와 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 경제적 측면과 인류학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1) 가족제도

조선중기 이후 보편화된 한국의 전통가족은 가계계승과 부계친족 집단의 결속을 중시하기 때문에 장남은 반드시 부모와 동거함으로써 가족의 창설과 확대, 축소, 해체의 과정이 분명하지 않고, 장남에서 장남으로 이어지는 직계가족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가족은 이러한 한국의 전통가족과 비교했을 때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장남이 결혼 후 부모가족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이다. 철저한 분가주의를 보여주는 이러한 제주도의 가족형은 전통적인 직계가족이 아니라, 부부가족이며, 자식이 결혼하여 분가할 때는 주거를 분리하여 독립된 가옥을 새로 마련하지만 가옥을 새로 마련할 형편이 못되거나,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없는 홀어머니만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족과 자식 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서 분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대개 ‘안거리’와 ‘밖거리’로 주거를 분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상 생활들도 각기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간다. 19세기 말의 호적중초에 이미 장남분가가 널리 행해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의 장남분가 전

통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랜 것으로 짐작된다.⁸⁾ 그리고 이러한 장남분가의 풍습은 재산상속, 제사상속, 가족관계, 부부관계, 가족의식 등 가족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제주도 특유의 가족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남분가의 전통외에도 제주도의 핵가족적 성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재산 상속의 균분 경향, 문중조직의 미발달, 육지와 상이한 혼인 의례, 부락내혼의 경향, 높은 이혼율과 재혼율, 사혼(死婚)의 관습, 조상제사의 분할 등이 그것이다. 이는 가계 계승과 부계 친족 집단의 조직화를 바탕으로 직계 가족을 지향하는 전통적인 한국가족과 매우 상이한 모습들이다.⁹⁾

이처럼 제주도의 가족제도가 육지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유교적 양반 문화의 희박, 머슴의 부재(不在)등을 들 수 있겠다.¹⁰⁾

2) 민간신앙

민간신앙이란 민간층의 생활 공동체 안에서 자생하여 전승되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종교현상이다. 이는 지연이든 혈연이든 간에 한 지역사회의 민중들에 의해 채용된 주술·종교적 신앙체계이며, 그 주류는 자연 종교로서의 무속신앙이다. 그리고 민간신앙은 공동체의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서민층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 범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공동체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절해고도, 척박한 토양, 다풍·다우의 가혹한 기후 조건 속에서 고된 자연과의 싸움을 치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초월자에 지향하는 무속적 생활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제주도의 민간신앙은 오랜 전통 속에 종교라기보다는 생활양식의 일부로 흡수되어 문화의 저변을 형성해온 지배적 사상이다. 이는 제주 문화의 심층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치체계와 세계관을 지배하면서 현재까지도 거의 원형 그대로 존재하여 제주인의 생활 속에 기능하고 있다.

제주의 마을은 대부분이 반농·반어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마을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계(契)나 접(接)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가정의 무사, 안녕과 생산의 풍요를 기원하는 무속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마을은 생산·노동의 공동체로서 지연·혈연을 하나로 묶는 곳 공동체이다.

8) 『제주의민속 V』, 제주도, 1998, p.554-557

9) 박은영,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1999, p.11 재인용

10) 박은영, 앞의 책, p.11 재인용

제주도의 무속신앙은 큰 곳을 통하여 종합되는데, 탐라는 본토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라는 탐라인의 세계관, 우주관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본토에는 창조신화가 전승되지 않지만, 제주에는 곳을 할 때 천지창조 신화가 불려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주 문화의 독자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도 무속신화인 <본풀이>속에는 제주인의 상상력과 문화, 제주 사회의 내재적인 규율과 법칙, 가치체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화를 향유하는 신앙민 집단의 미의식이 발현되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삼분체계 형식의 화법을 빌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삼분체계는 한반도와 동서양에 두루 분포하고 있는 삼분체계 형식의 화법을 빌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삼분체계는 한반도와 동서양에 두루 분포하고 있는 삼분체계, 인구어 계통의 삼기능체계, 정반합의 변증법, 삼단논법등과는 다른 화법이며 논리 체계인 동시에 신화의 문법이다. 이 또한 제주문화의 독자성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제주도 전통민가의 일반적 고찰

1. 배치

(1) 배치특성

제주도 전통주거가 본토의 전통주거와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배치와 철저한 별동배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속적 사고와 풍수지리의 영향, 기후적 요구, 가족제도의 특이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제주도 특유의 가족제도로 인한 안·밖거리의 분리 거주와 바람이 많은 기후적 특성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한 대비가 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¹⁾ 그리고 이외에도 바람이 많고 강한 기후의 제약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기도 하며 ‘마당 공간’이 농어물의 건조장과 작업장으로 이용되는 외에 여름철의 서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풍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분동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도 한다.¹²⁾

가옥의 좌향은 지형, 풍향, 일사량 등의 자연적 조건외에 방위에 대한 길흉관습이 결정요인이 된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풍수지리설에 의한 배산임수의 입지가

11) 박은영, 앞의 책,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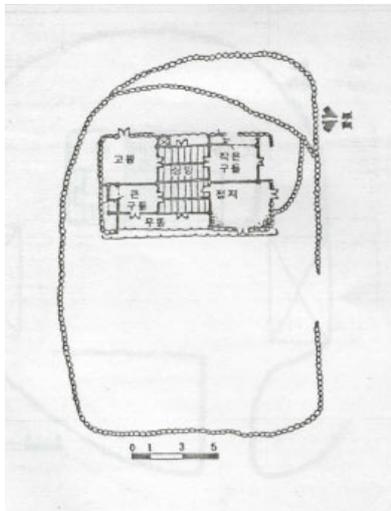
12) 김석운,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 박사논문, 1997, p.36

철저히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중앙에 한라산이 솟아 있는 지형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섬의 북서쪽에서는 겨울에 북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

(2) 제주도 민가의 배치유형¹³⁾

건물의 채수에 따라 외거리 집, 두거리 집, 세거리 집, 네거리 집으로 분류되고, 배치형태에 따라 모로 앉은 형, 마주 앉는 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1) 한거리집



돌담 울타리 안에 건물 하나(안거리)로 구성된 경우를 말한다. 2칸 막살이집, 세칸집, 네칸집이 있으며 막살이집 앞에는 반드시 마당이 있다. 이는 농작업의 공간으로서 통풍, 채광을 위한 인동 간격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올래는 거의 없이 바로 마당으로 들어가거나 있더라도 짧고 안 뒤와 우영 등의 예비공간은 이런 류의 집에서는 대부분 고려되지 않는다.

그림 3-1 한거리집

2) 두거리집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건물이 배치된 집으로 3칸집 또는 4칸집의 안거리, 밖거리를 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이나 ㄷ자형으로 배치한 집이다.

① 마주앉은 두거리집

안거리와 밖거리의 건물이 마당을 중심으로 마주 보도록 일렬로 배치된 집이다.

② 모로앉은 두거리집

안거리와 밖거리의 건물이 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으로 배치된 집이다. 이 때, 밖거리는 일조계수를 고려하여 안거리의 모에 앉히게 되며 대문은 집의 측면으로 되어 출입할 때는 ㄱ자로 꺾이어 마당으로 들어서게 된다.

13) 박은영, 앞의 책,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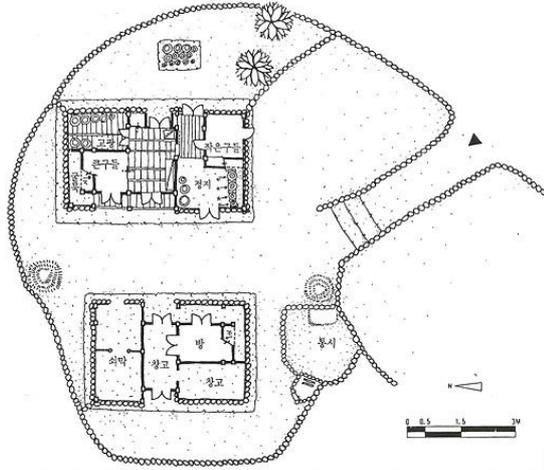


그림 3-2 마주앞은 두거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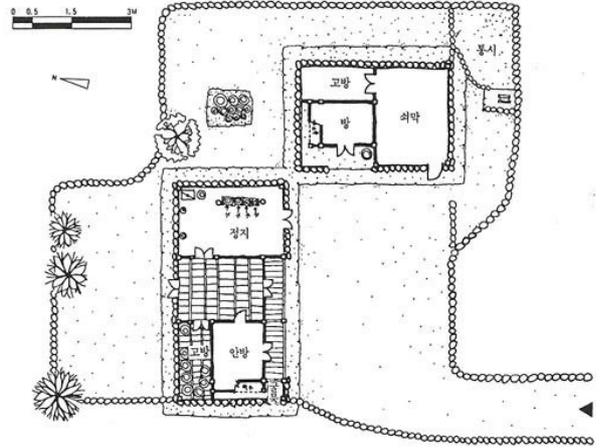


그림 3-3 모로앞은 두거리집

3) 세거리집

한 울타리 안에 세 채의 건물이 배치된 집으로서 안·밖거리형 배치에 모거리가 추가된 배치로 모거리는 소규모의 경영시설이 대부분이고 안거리에 따른 정지거리가 되기도 한다.

세거리집은 북부지역에 많은데 대가족을 이루면서도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나가는 제주도 특유의 가족제도에 기인하는 주택 형식인 듯하다. 이 형태는 제주도에 가장 많고 보편화된 주택의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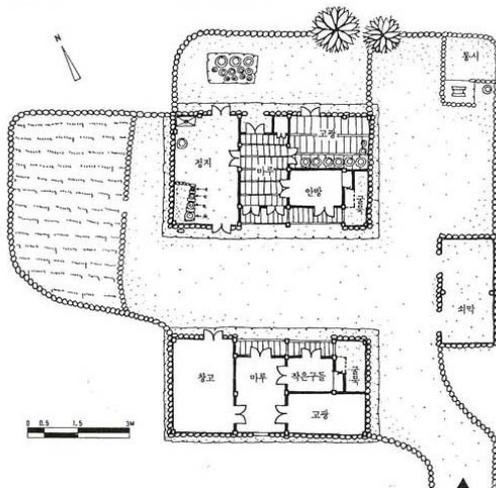


그림 3-4 마주앞은 세거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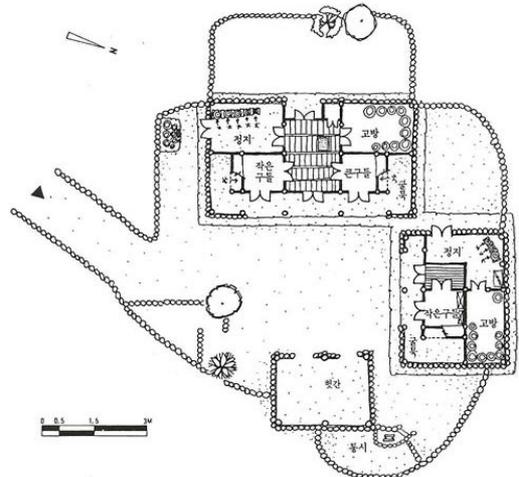


그림 3-5 모로앞은 세거리집

① 마주앉은 세거리집

마주앉은 두거리집과 안·밖거리의 배치는 같으나 밖거리에 설치되었던 쇠막·헛간 등을 독립시켜 판채로 만든 형태이다.

② 모로 앉은 세거리집

안거리와 밖거리를 ㄱ자로 배치하고 쇠막, 헛간 등을 안거리 맞은편에 설치한 집을 말한다. 즉, 밖거리의 부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에 설치되었던 쇠막 또는 헛간 등을 독립시켜 판채로 만든다. 이런 형은 모로앉은 두거리집과 마찬가지로 남부지역의 농촌에 많다.

4) 네거리집

안·밖거리를 마당을 중심으로 마주보게 일렬로 배치하고, 그것의 양쪽에 ㄱ자를 이루도록 외양간·헛간, 수레간 등을 설치하고 이것들의 밖에는 이문간을 만들어 놓은 형태이다. 이것은 제주민가에서 가장 발달되고 중농이상의 귀족형의 주택으로 어떤 정형을 갖추지 않고 자유스런 배치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전통민가의 배치형태는 二자형배치가 기본형으로서 그 변형인 ㄱ자형 배치, ㄷ자형 배치, ㄱ자형 배치 등이 생겼고, 一자형 배치는 二자형배치의 미발달 또는 쇠퇴형이라 생각된다.

2. 공간구성

(1) 평면의 유형과 특징

1) 평면유형

평면유형은 일반적으로 안거리의 평면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간(間)분리의 형태에 따라 규모가 작은 것부터 막살이집(2칸집), 3칸집, 4칸집으로 구분된다.

3칸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민가의 유형이며 일반적으로 구들, 상방, 정지의 3칸으로 구성된다. 이는 작은 구들이 없는 형과 작은 구들이 있는 형으로 분류되고 작은 구들이 있는 형은 다시 부엌간의 평면 형태에 따라 한간형, 중마루형, 부엌내형(혹은 정지내형)으로 분류된다. 그 이전 단계로 두칸 막살이형이 있고 종류층 이상에서는 외형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책방 공간을 갖는 네칸형이 나타난다.

3칸형중 한간형에서는 정지공간의 1/2을 작은 구들로 사용하고, 난방방법은 외측벽에 출입구를 두어 굴뚝을 이용하거나 직접 정지에 아궁이를 설치하여 해결한

다.

중마루형은 한간형의 정지공간의 작은 구들이 중분화되어 상방과 작은 구들사이에 마루를 깔아 중마루 공간을 형성한 것이다. 중마루는 부엌의 일부가 되어 부엌내부의 기능을 분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간형중 부엌내형은 부엌내에 작은 구들을 배치시켜 중마루형과는 달리 작은 구들을 상방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한 형태이다. 외벽과의 사이에 생기는 공간은 부엌의 일부가 되어 난방공간이나 수납공간으로 이용된다. 마루방에는 장방을 설치하지 않고 부엌의 살레(찬장)가 그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부엌내부의 공간 기능이 분화되는 것이다.

2) 평면적 특징

제주도 전통민가의 평면적 특징은 겹집형식의 일자형으로 곡가(曲家)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인 3간집에서 보면 상방을 중심으로 한쪽에 큰 구들의 뒷간으로 고팡이 놓이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구들 또는 정지 등이 놓인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고팡, 작은 구들 또는 방이 거의 고정적 위치에 있다.

그리고 앞을 통해서만 완충공간인 퇴에서 마당으로 연결되고 뒤쪽으로는 뒷문을 통해서 안뒤로 트인다. 전후좌우에 뒷간이 있어 측면의 퇴는 난방을 위한 굴뚝이 되고 고팡과 정지는 뒷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방에 비해 넓다. 이러한 퇴는 낮은 기단과 함께 동선연결을 원활히 해주며 방에 악천후의 기후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중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취사와 난방의 분리에서 얻은 합리적인 평면구성이 제주 민가의 두드러진 장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 내부공간

1) 상방(마루)



그림 3-6 상방마루

주택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다목적 공간으로서 개방적인 공간이다. 상방은 2간형 민가에서 3간형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엌공간이 기능분화된 것이다. 따라서 3간집과 4간집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상방은 집주인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소이기도 하며 가내의 평안과 부귀를 담당하는 가옥의 대표신을

모시는 곳이기도 하다. 건물 전체의 면적으로 볼 때 정지와 더불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혼상제가 행하여지는 공적 요소를 갖는 공간이다. 그리고 전, 후면의 외부공간과 직접 접하고 있어서 여름철의 통풍에 유리하다.

2) 구들

큰 구들과 작은 구들이 있는데 큰 구들은 부부가 사용하고 작은 구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밖거리 구들에는 세대가 전혀 다른 성장한 아들부부 또는 경제력을 상실한 노부부 등이 산다. 구들은 사적 생활공간이며, 또한 조상신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이기도 하다.

3) 정지



그림 3-7 정지

주택에서 정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2간집에서 1/2, 3간집에서 1/3, 4간집에서 1/4이 일반적이다. 정지는 가사노동의 공간이며 대표적인 여성공간이다.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으며 벽은 돌을 쌓아 흙만 바르며 천장은 구조가 노출되어 있다. 정지의 기능은 취사공간, 저장공간 등이며 상류층의 3간집이나 4간집에서는 정지가 별도로 떨어져 모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지는 상방이나 챗방과 연결(부엌+마루, 부엌+챗방+마루)되어 기능분화가 잘되어 있다.

4) 챗방

챗방은 상방과 같은 마루방이다. 평상시는 식사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의식 행사시는 배선실적 성격의 공간으로서 부엌+챗방+마루로 연결되어 있어 공간별 기능분화가 잘 되어 있다. 식사공간의 위생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상방으로부터 기능 분화한 것이다. 이는 근대적 공간분화라는 점에서 제주도 민가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5) 고팡

식량과 씨앗등을 담은 항아리와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저장공간이다. 흙바닥이거나 우물마루의 바닥에 벽은 토벽이고, 천장은 노출반자이다. 환기를 위한 두 개



그림 3-8 고팡

의 작은 창을 내고 상방에서 통한다. 고팡이 상방을 사이에 두고 부엌과 떨어져서 큰구들에 접하여 위치한 이유는 평면계획상 분할식 방법에 의한 한칸 나누기를 합리적으로 한 것과 소농등의 생활환경에서 식량의 중요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곳은 무속신의 영역이며 제사 때에는 이 신을 위해 고팡상을 차리기도 한다.

6) 퇴



그림 3-9 퇴

상방과 마당사이에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완충공간으로서 외부에 개방되어 있으며 상방 기능의 질을 높여주고 비바람과 일광의 여과, 일시적 수납공간에 유용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중간 성격을 지닌다. 바닥이 마당보다는 높고 상방과는 같아서 마당과는 구분이 되면서 밖으로는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연속되어 있다. 비바람이 칠때는 상방과 구들에 비가 직접 들지 않도록 완충공간의 역할을 하고

따사로운 햇살이 들 때 방에서 나와 일광을 즐기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7) 굴뚝



그림 3-10 굴뚝어귀

굴뚝은 난방을 위한 공간으로 주택의 보건위생적 공간에 속한다. 굴뚝의 상부는 방에서 벽장으로 사용되고 그 밑에는 방의 중앙위치에 불을 댈 수 있는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굴뚝의 고팡쪽 구석에는 불을 때고 난 재를 쌓아두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

(3) 외부공간

1) 올래



그림 3-11 긴 올래



그림 3-12 올래에서 보이는 안거리



그림 3-13 자연스럽게 휘어진 올래

올래는 주택에 출입할 때의 진입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폭은 2.1m-3.0m 정도이고 길이는 2-18m까지 다양하며¹⁴⁾ 형태도 I형, L형, S형 등 다양하다.¹⁵⁾ 올래의 입구를 어귀라 부르는데 그 양쪽에는 어귀돌이 놓이고 그 앞에는 말을 탈 때 디딤돌로 사용하는 몰팡돌이 놓인다. 이것들은 주택의 입구의 시작을 암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내부로 더 들어가면 일종의 대문 역할을 하는 정낭이 있는데 주인의 부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올래의 양옆을 따라 비가 올 때 신발에 흙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리팡돌이 설치되는데 이것은 주택 내부로 유도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올래는 곧게 나 있지 않고 반드시 구부러져 있는데 이것을 올래목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올래목은 주택내부로 들어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택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긴 진입 공간에 변화를 줌으로써 지루한 감을 없애줌과 동시에 마당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종의 전환의

기능을 한다.

2) 마당

마당의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으며, 이곳은 추수기의 작업공간이자 통풍, 채광을 위한 인동간격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비가 올 때에 대비하여 올래의 다리팡돌에 이어 마당의 둘레에 팡돌을 설치한다.

14) 濟州道建築士會, 濟州建築, 제2집 :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1992

15)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설계적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3, p.21

3) 안 뒤



그림 3-14 안뒤

안거리의 뒷벽 한쪽 끝에서 다른쪽으로 원(垣)을 쌓아서 외부와 통하지 못하도록 만든 공간이다. 출입은 상방의 뒷문을 이용하거나 정지뒷문을 이용한다. 여기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세계를 차단하고 넓은 그늘을 만들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주변에

는 넓적한 돌들이 깔려있고 주인은 여기에 앉아서 명상에 잠길 수 있도록 휴식공간화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신비로운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시원한 바람이 있는 공간이고 외부와의 시선이 차단되어 타인에 비공개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즉 주택의 ‘음(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¹⁶⁾

4) 놀굽



그림 3-15 놀굽

탈곡하기 전의 농작물을 묶어 쌓아두거나 탈곡하고 난 짚을 날가리로 석워 놓은 조영물(造營物)을 ‘놀’이라 하고 이러한 행위를 ‘놀을 눈다’고 한다. 놀을 만드는 자리는 마당 한쪽 구석으로 우천시 침수를 피하기 위해 마당면으로부터 40-50cm 높게 돌로 단을 놓고 평평하게 했다. 이곳을 ‘놀과 놀굽’이라 하

고 ‘놀’은 지붕과 함께 경관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5) 우영

울타리 안에 건물이 배치되고 난 여분의 터에 채소등을 심어 부식을 자급하는데 활용되는 공간을 우영, 우영밭 혹은 우жат이라 부른다. 우жат 공간은 우영중 밭으로 쓰이지 않는 허드레터로 외부 수장공간이 되는 곳이다.

6) 통시

16) 양택훈, 앞의 책, p.23



그림 3-16 통시

넓고 기다란 돌을 놓았을 뿐 구조물은 없다. 다만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담을 약간 높게 쌓았을 뿐이다.

변소를 ‘통시’라 부르는데 일종의 우잣공간에 설치되며 부엌 반대쪽 또는 안거리 부엌과 멀리 떨어진 밖거리 옆에 위치한다. 그리고 대개 건물의 한쪽 옆을 돌아가서 설치되어 있어 마당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배려되어 있다. 통시에는 돼지를 직접사육하여 인분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을 보는 장소에는 지상에서 2-3계단 올라가도록 하여 두 개의

(4) 외부공간구성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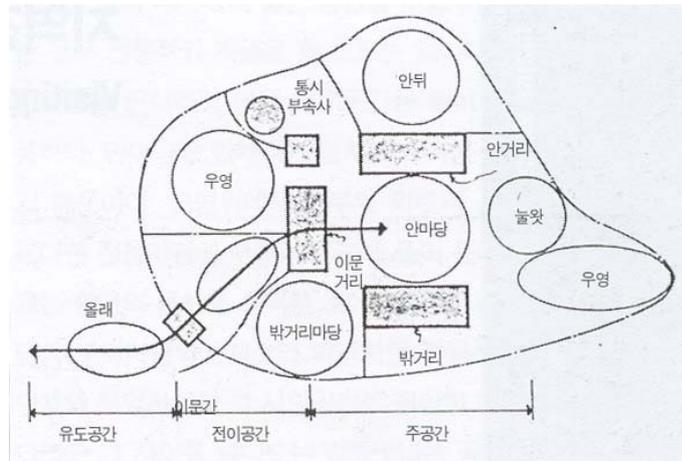


그림 3-17 제주 전통주거의 구성

제주도 전통민가의 외부공간은 올래, 올래목, 마당, 그리고 안뒤를 포함한 모든 주거공간의 마지막 공간으로 나누어 볼 때, 크게 도입부, 전곡부(轉曲部), 발전부와 종결부의 리듬구성을 이루고 있다.

도입부에 해당되는 올래는 다시 몰판돌이나 어귀돌에 의해서 제 1차 암시를 받는 부분과 정낭에 의해 2차 암시를 받는 부분, 그리고 다리판돌에 의해 유도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¹⁷⁾ 전곡부에 해당되는 공간으로서 올래목은 공간의 전환기능을 한다. 발전부는 마당공간으로 긴 진입로를 빠져나와 다다른 밝은 공간이

17) 양택훈, 앞의 책, p.24

다. 종결부는 안정과 휴식으로 맺어주는 공간이다. 이러한 리드미컬한 공간 구성에 의해 주택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흥미로운 공간적 체험을 하게 된다. 즉 올라의 길고 지루함이 올라목에서 한번 전환이 이루어지고 다시 마당에서 발전을 이루게 되고 안정과 휴식의 공간에서 끝을 맺는다.

별동 배치에 따라 각 동 사이의 외부공간들은 우영, 우잣, 놀굽 등으로 자연스럽게 그 기능들이 마련된다. 안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밖거리, 모거리, 놀굽은 사국형성의 요소가 되고 있다. 각 동은 규모나 재료의 위계성은 있으나 높이에 따른 위계는 미약하고 성별에 따른 영역의 분화가 뚜렷하지 않다.

3. 의장적 요소

제주전통주거의 기본적인 입면 구성은 굵은 새줄로 얽어맨 얇은 물매의 유선형 사다리꼴 지붕과 이를 받쳐주고 있는 암회색 다공질 현무암의 벽체로 이루어져 있다. 지붕과 벽은 상호재질 대비와 명도 대비를 이루고 덧벽을 서까래 밑까지 바싹 쌓지 않고 그늘을 줌으로써 이 대비를 더욱 강조하였으며, 석벽에 더욱 힘차게 버티는 느낌을 주기 위하여 약간 경사지게 쌓는다.

(1) 가구적 요소

1) 기단

다듬은 현무암을 일단 15cm 내외의 높이로 그 폭은 처마 선단까지 같은 폭 90cm으로 축조되었는데, 잇돌이라 불리운다. 제주도 민가의 기단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고 낮은 만큼 마당과 퇴의 공간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2) 석벽

석벽은 목조구체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구체 밖으로 쌓은 비내력 벽으로 현무암으로 쌓아 내피와 외피를 분리하는 특징이 있다. 석벽에 사용하는 돌은 15-30cm정도의 두께이고, 지면에서 상부 마무리까지의 높이는 1.9m 내외이며, 10cm 내외의 기울기로서 상부로 갈수록 들어쌓아 건물의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된다.

3) 벽체

외부 일부 및 내부 벽체의 하부는 판장벽이며 상부는 흙마감이다. 벽체구조 방식은 심벽식으로 기둥이 밖에서 보이도록 기둥 사이에 벽을 만들었다. 외벽은 거의 이중벽으로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다공질 현무암으로 둘러 쌓은 것이 육지부와 비교해 보았을 때 특색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내벽은 경제적 사정에 따라 구조재가 다른데 토벽상태 또는 토벽 위에 도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의 하반을 목판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많다.

4) 풍채



그림 3-18 (발)풍채

풍채는 각목으로 뼈대를 짠 위에 새를 엮어서 만든 것으로 비바람이 칠 때는 이것을 내려서 비바람을 막고 햇빛이 비칠 때는 올려서 땀별이 비추는 것을 막는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개폐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2) 외부경관

1)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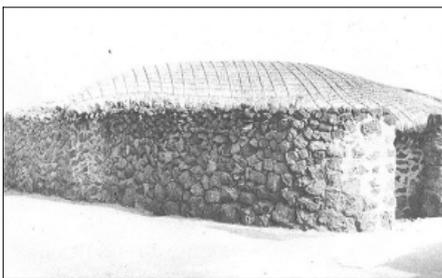


그림 3-19 외부의 담

현무암으로 높이 1.7m 내외로 경계와 공간구획, 방풍의 목적으로 쌓아 주요 경관요소가 되며 통일성을 이루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2) 지붕

우진각 지붕으로 경사가 얇은 것은 비보다 바람에 대한 고려이다. 대부분 초가이며 ‘새’를 펼친 후에 직경 5cm내외의 ‘새’로 꼬은 줄(30cm -40cm 간격)로 엮어 매어 지붕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한다.

3) 개구부

상방과 정지에는 판장문을 설치하며, 구들의 창호를 비바람에 보호하기 위하여 덧문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널문은 모든 외부문에 이용되는 것으로 판자 널문을 이용하는데 견고하고 폐쇄적인 것이 특색이다. 이것은 강풍방지의 기능 뿐만 아니라 외부차단의 경계심리도 잠재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후면의 출입이 가능한 상방의 출입문은 생활습관과 기후의 영향으로 육지 출입문의 1m40cm 내외보다 큰 1m65cm 내외이며, 문지방은 20cm 이하로 낮아 출입시에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다.

(3) 재료

1) 새

새는 지붕의 재료가 된다. 새를 펴서 지붕을 두텁게 덮으며, 새끼를 꼬아서 격자형으로 짜서 처마 횡목에 고정시킨다. 이러한 새는 한라산 기슭 오름의 새왓에서 꽃대가 올라오기 전 가을에 베어 놓았다가 겨울에 쓴다.

2) 돌(현무암)

현무암은 제주도에서 제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재료중의 하나였다. 제주도의 생성된 배경을 지질학적으로 볼 때 제 3기 말에서 제 4기 초에 걸쳐 수십차례에 걸친 용암분출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제주의 지질표층은 현무암층으로 덮히게 되었다.¹⁸⁾ 현무암층으로 이루어진 기반과 남태평양에서 휘몰아쳐오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제주인들은 바람을 이겨내면서 지천으로 널려진 돌을 생활도구 및 건축재료로 이용하면서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였다. 주로 현무암은 전통민가에서 돌담의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섬 전체를 하나의 돌의 선으로 연결하다시피 이어놓은 <밭담>들은 제주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웃과 이웃, 마을과 마을, 밭과 밭을 나누는 경계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제주의 전통적인 민가는 거의 전부가 돌로 이루어졌는데 울담부터가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쌓여진 돌담으로 되어 있어 풍속 영향을 낮추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고 올래에는 정주석을 만들어 정낭을 끼워 놓고 대문을 대신했으며 정지의 아

18) 김세균, 「제주의 돌」, 『제주도』, 1987

궁이, 초석과 기단, 그리고 물허벅을 놓는 물팡도 돌을 이용하였다. 눌굽도 잡석을 쌓아 만들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생활도구, 농기구에도 돌이 널리 사용되었다.

제주도 전통민가를 포함한 제주도 전체적인 모습이 섬세하지 못하고 묵중하며 또 화려하지 못하고 소박한 느낌을 주는 것은 제주를 뒤덮은 현무암과 그것이 곳곳에 사용되어진 데서 비롯되는 이미지도 한 몫을 하는 듯하다. 그래서 제주도 전통민가는 생경하면서도 투박하며 견고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이미지와 함께 바람과 돌이 연상되는 것이다.

제Ⅳ장 다른 도서 지역 전통민가와와의 비교

제1절 평면유형별 비교

1. 우리나라의 전통주택의 평면구성 분류

우리 나라 전통주택의 평면구성을 유형별로 분류한 연구는 많다. 처음으로 분류한 학자는 일본인인 今和次郎이며, 그는 1922년 9월부터 10월까지 1개월간 총독부의 위촉으로 우리 나라 주요도시 및 그 부근의 민가를 답사하고 정리한 연구의 결과를 1924년 「조선부락조사특별보고」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연구에서 그는 우리 나라 전통주택을 홑집에 해당되는 「일반형」과 겹집에 해당되는 「복부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¹⁹⁾ 그 이후의 연구들은 이들을 다시 지리적인 권역에 따라 세분하여 분류하기도 하고 평면의 시각적 형태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기도 한다. 혹은 지역명과 평면의 구성내용, 형태 등을 혼용하여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민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의 평면유형의 분류는 표 4-1과 같다.

표 4-1 평면유형의 분류

제안자	평면유형의 분류 내용	분류시기
今 和 次 郎	복선형, 일반형	1923
岩 槻 善 之	복선형, 서선형, 중선형, 경성형, 남선형	1924
藤 島 亥 治 郎	복선형, 서선형, 중선형, 경성형, 남선형, 제주도형	1925
野 村 孝 文	제주도형, 복선형, 일반형(서선형과 남선형) 도회형(중선형과 경성형)	1938
주 남 철	함경도지방형, 평안도지방형, 중부지방형, 남부지방형, 제주도지방형, 도시형, 특수형	1965
이 영 택	중부형, 남부형, 관서형, 관북형	
장 보 응	평야형(단렬의 一자형, ㄴ자형, 二자형, ㄷ자형, ㄹ자형) 산지형(복렬의 田자형, 직가형, 곡가형), 도서형	1974
주 남 철	함경도지방형, 평안도지방형, 중부지방형, 서울지방형, 남부지방형, 제 주도지방형	1980
장보응 · 石田寬	대분류 : 복렬형, 단렬형, 측입형 소분류 : 5실형, 4실 곡가형, 4실 직가형, 二자형, ㄴ자형, 一자형, 중 양부역형, 3실형	1981
김광언	홑집계통(평안도집, 경기도집, 충청도집, 전라도집, 경상도집) 겹집계통(함경도집, 강원도집, 황해도집), 제주도집	1988

19) 김명복, 「강원도 남부와 경북 북부지역의 겹집에 관한 연구」, 영남대박론, 1993, p.13

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 연구들에서 제주도 민가의 경우, 따로 제주도형이라 명명하여 분류할 만큼 평면의 내용에 있어서 다른 지역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형을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 전통민가의 평면유형의 구분은 크게 겹집과 홑집으로 대표되는 북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될 수 있을 듯하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 전통민가가 남쪽에 위치하면서도 북부형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배경과 그 차이점과 유사한 점은 무엇인지 비교해보기로 한다.

따라서 크게 홑집과 겹집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유사한 기후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도서지역민가를 그 대상으로 하되, 겹집에 있어서는 도서지역에서 겹집유형을 갖는 백령도와 반도부의 북부형 민가를 그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그래서 제주도 민가와 같은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부형과 백령도 민가와 어떤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²⁰⁾

2. 홑집

홑집은 모든 옥내의 각 공간의 벽을 2면 이상 외기와 접하도록 한 구조로서 외부와의 단속(斷續)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광과 통풍에 용이하여 연교차와 일교차가 심한 기후를 극복하는 최선의 구조가 된다. 여기에 간벽에 개구부를 두지 않아 가족구성원간에 프라이버시에도 유리하다. 도서지방에 있어서 홑집의 평면구조형은 중부도서형과 남부호남도서형 그리고 남부영남도서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²¹⁾

(1) 중부도서형

중부도서형에 해당하는 도서는 동해상의 울릉도와 서해상에서는 원산도가 해당한다. 이외에도 다수가 있으나 이 지역이 문화적 점이지대로 홑一자, 홑ㄱ자, 겹一자, 겹ㄱ자 등의 다양한 점이적 가옥형의 집합을 보여주는 특색은 있으나 원산도의 홑일자의 초옥민가처럼 표준화되지는 못한 상태로 원산도의 홑일자형 민가가 다른 이 지역의 도서의 동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 미리 밝혀둘 것은 도서지역의 민가를 살펴봄에 있어서 많은 문헌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 비교적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송성대의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본 장의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직접 찾아다니며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한 게 아니므로 일일이 각주를 달지는 못하였지만 기존 연구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수준에서 본 장의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을 찾아내고 그의 현대적 적용에 있으므로 본 장의 내용은 아쉽지만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만족하였다.

21) 송성대, 앞의 책, p.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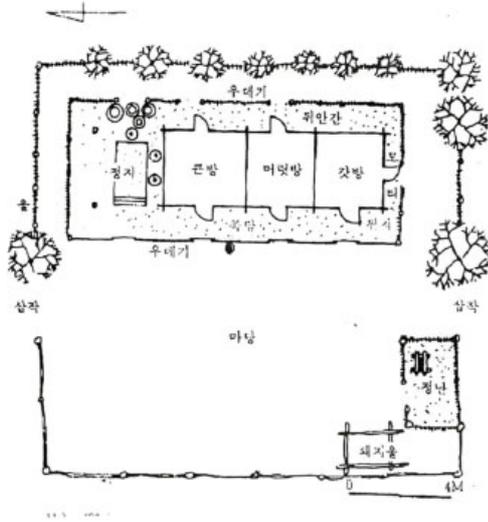


그림 4-1 울릉도 김삼룡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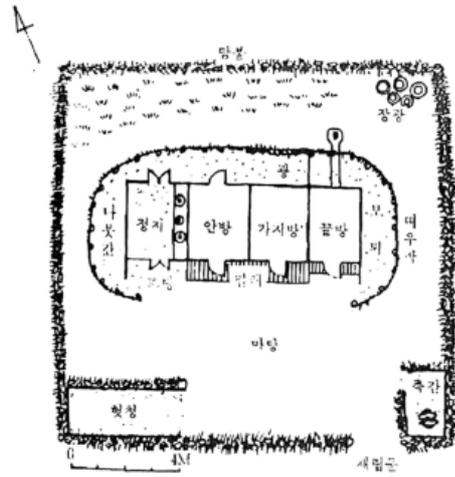


그림 4-2 원산도 김수남씨가

중부도서형 민가의 경관적 공통점은 장막벽이 본벽을 둘러 싸고 있다는 것이고, 그 내부에 주거공간이 마련되고 있다. 그림4-1의 울릉도 민가를 보면 정지를 좌측단에 배치하고 그에 연접하여 큰방, 머릿방, 갓방순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처럼 정지를 가운데에 두고 양측에 방을 배치하는 경우는 드물고 측단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구조가 중부도서지방 민가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겨울의 눈과 바람의 한랭한 기후의 영향으로 하나의 분구에서 모든 방이 취난할 수 있도록 통고래 체계의 취난구조를 위해서라고 보여진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울릉도의 경우에는 기후의 영향으로 가옥의 주위에 장막벽인 우데기를 쳐 버리고 충분한 일조량의 확보를 위한 전면 개방조차 여의치 않은 반면 서해의 원산도의 경우, 북서계절풍의 바람받이에만 장막벽을 설치하고 전면은 개방적인 모습이 된다. 이들에게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 지역의 민가는 기본적으로는 홑집형구조이나 반도부와는 물론 다른 도서의 홑집형민가와도 다른 폐쇄적 홑집형이 되고 있고 이것은 홑집구조에서 겹집구조로 넘어가는 점이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²²⁾

(2) 남부호남형

이 지역에 속하는 도서로는 흑산도, 보길도, 추자도, 청산도, 거문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역 민가의 간수는 다간구조로는 5칸까지 나타나며 혼치는 않지만 홑2칸 구

22) 송성대, 앞의 책, p.81

조도 있었다고 한다. 3칸구조에서부터 이 지역 정형의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림 4-3과 그림 4-4에서처럼 정지-방-말래 순으로 공간이 배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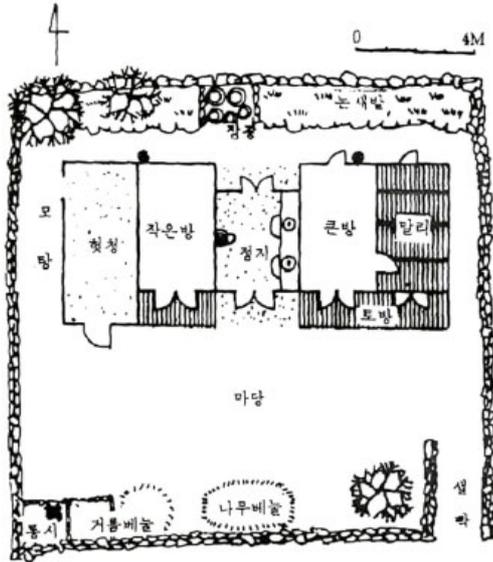


그림 4-3 보길도 최시출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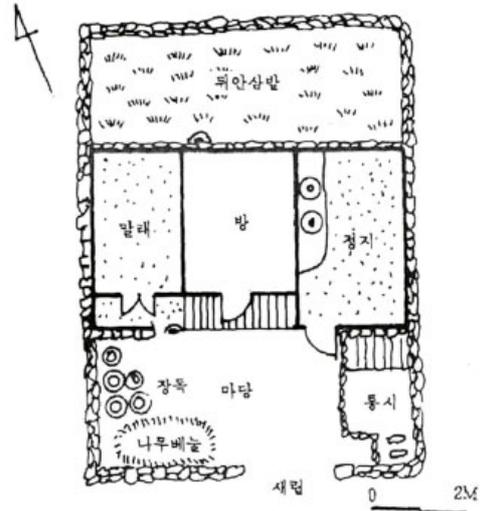


그림 4-4 추자도 김도심씨가

여기에서 식량저장기능과 가묘(家廟)의 기능을 갖는 토간의 마래가 정지와는 분리되고 방과 연결하는 것은 이 지역 고유의 특징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3칸구조는 그 이상의 칸구조에비해서는 폐쇄적이고 남부영남도서의 가옥에 비해서도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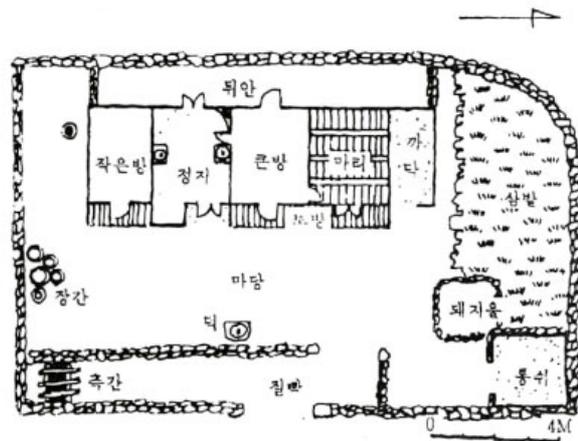


그림 4-5 흑산도 이유복씨가

그러나 이 지역의 보편적 구조형인 4칸구조에서부터 남부호남도서 민가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전체적인 평면구조가 정지간을 중앙에 배치해 놓은 후 다른 나머지 공간들을 구성하게 되어 마리(말래)-큰방-정지-작은 방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특징 세가지는 첫 번째로 정지에 연해서 양쪽에 반드시 방이 배치된다는 것, 대부분의 민가

가 정지 앞뒤는 물론 정지 뒷뒤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도서에서는 전무한 '마루', '말리', 혹은 '말래'라는 수장 및 신앙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

도서지역만이 갖는 특유한 구조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후스트레스로 인해 주거의 여러기능이 하나의 건물에 집중되어가는 현상의 초기 모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에서 마루는 반드시 큰방에 연해서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중북부도서에서 수장공간이 정지에 견인되거나 장막벽에 의해서 생기는 회랑의 특정공간을 이용하는 것과 남부영남도서지역에서 별채를 두어 여기에 수장공간을 구성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즉, 단동으로의 주거의 기능이 집중되면서 한정된 면적의 이용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 생겨난 공간이다. 처음에는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불편한 토간의 수장공간이었으나 공간이용의 증대를 위해서 봉사(奉祀)기능과 그와 관련된 물건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게 되면서 신앙공간으로 되는 복합공간으로 변용해 간 것이다. 따라서 점차 널마루의 구조가 된다.

남부호남도서지역은 여름철의 태풍, 봄과 가을의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주기적 이동에 따른 심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4칸구조가 일반화된 것이라 보여지며 마루나 작은방 곁에 ‘까닥’이라는 날개간을 만들어 5칸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²³⁾

(3) 남부영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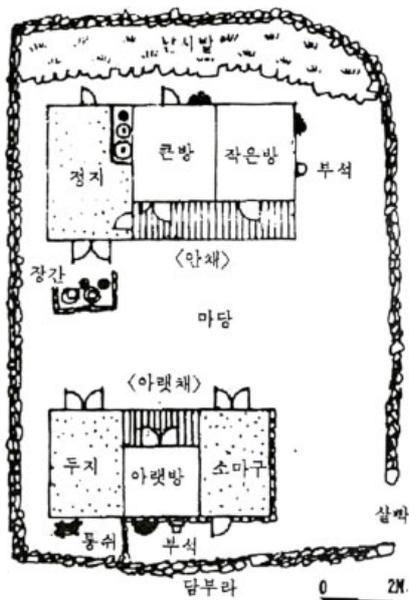


그림 4-6 거제도 옥원철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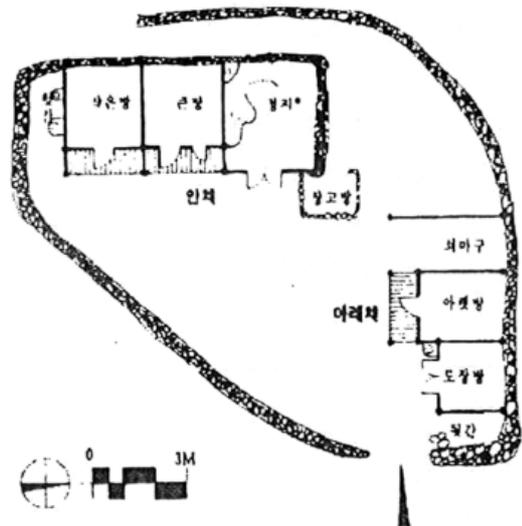


그림 4-7 남해도 김씨가

23) 보길도의 최시출씨의 경우는 큰 헛청이라는 공간이 생겨나 5칸구조를 형성한다.

이 지역은 홑집구조의 다른 지역의 민가와는 달리 단동일체형이 아닌 다동분립형이라는 데에서 우선 다른 특징을 갖는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3간구조가 이 지역의 보편화된 민가의 평면구조이다.

주옥은 정지-안방-작은방, 그리고 외옥은 쇠마구-아랫방-도장방(뒤지)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같은 홑집3간이면서도 호남도서지역의 정지-방-마루라는 구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침거공간을 연결시키는 것은 비, 바람, 눈의 기후요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더 의식했다는 것과 지세에 대한 적응방법에서 오는 채분화의 요구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이 지역은 북서계절풍의 바람그늘이 되어 다른 대부분의 도서가 동절(冬節)형 가옥 구조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하절형 가옥으로서의 특징이 더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무리한 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까지 단동의 건물을 구성하기보다는 소단위의 채를 만들어 지세에 따라 배치하여 겨울철 외 계절의 바람까지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취했던 것이다. 가옥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직二字분립형이 되었으나 대지 면적이 협소할 경우에는 곡二字분립형이 되기도 한다.

난방일이 짧고 취사시의 열만을 이용해서 취난을 하기 때문에 중북부도서지역의 통고래의 분구집중식 혹은 호남도서지역의 정지집중의 분구가 아닌 홑고래의 분구분리식을 채택함으로써 방의 전용성과 확장성을 유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결시켜나간 것으로 보여진다.

(4) 도서지역의 홑집 민가와 제주도의 민가

이상에서 홑집구조의 다른 도서지역 민가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다시 정리하면, 위에서 같은 홑집구조이면서도 각 지역의 민가는 중부도서형 > 남부호남도서형 > 남부영남도서형 순으로 폐쇄적인 형태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중부도서형과 남부호남도서형의 경우는 단동일체형의 주가구성을 보이나, 남부영남도서형의 경우는 다동분립형이 되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중부도서형에서는 정지가 측단에 배치되고, 남부호남도서형에서는 중앙에, 남부영남도서형은 정지를 측단에 배치하고 침거공간을 연결시켜 배치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지의 위치는 각 지역의 취난체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중부도서형은 분구집중의 통고래체계, 남부호남도서형은 정지집중의 분구, 그리고 남부영남지역의 분구분리식의 홑고래의 구조를 취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기후적 요인의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부도서형은 홑집이면서도 그 폐쇄적 모습에서 홑집구조에서 겹집구조로 넘어가는 점이형의 모습을 보여주며, 남부호남도서형은 이 지역 고유의 '마루'라는 수장공간 겸

신앙공간에서 기후적 요인으로 인한 주거의 여러기능이 하나의 건물에 집중되면서 가옥면적의 이용을 최대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제주도의 민가는 기본적으로 겹집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 폐쇄적인 듯하나 일종의 마루공간과 유사한 상방마루 공간을 지니고 있어 개방성 또한 함께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단동일체형 주거구성이 아닌 다동분립형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기후적 요소로서 제주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다. 취난체계도 제주도의 경우는 정지와 분구가 분리되어 있으며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 정지가 따로 분리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한다.

도서지역은 비교적 유사한 기후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으나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미기후등으로 인해 다양한 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위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다른 도서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 모습을 종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듯이 보이며 이는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남단에 위치에 있으면서도 한반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비교적 가운데에 위치한-로 인한 기후의 특성에 연유한 것으로 보여진다.

3. 겹집

(1)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겹집형의 민가는 함경도지방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서 강원도 일부지방까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겹집형 민가의 분포는 지리적, 문화적 영향뿐 아니라, 기후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겹집형 민가는 방의 수와 면적에 비해서 밀실한 평면구성과 작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외피를 통한 열손실이 적어 추운 기후에 적응하기가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과 더불어 제주도지방에서도 겹집형 민가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반도의 겹집형 민가와 다른 별개의 제주도형 민가를 형성하고 있다. 즉, 상방이라고 불리우는 마루가 중앙에 위치하고, 육지의 온돌방에 비해 발달이 덜 된 구들이 좌우에 있어 제주도 민가의 평면구조는 북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폐쇄적인 성격을 띤다.

연평균 기온이 비교적 높은 제주도에 이러한 겹집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역시 기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한 비교적 높은 습도, 그리고 여름에 휩쓸고 지나가는 태풍으로 인해 온도가 높은 남부지역에는 一자형의 홑집구조 민가가 대다수인데, 제주도 민가의 경우에는 건물 자체는 一자형이지만 겹집형태의 평면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건물을 별동 배치함으로써 외부

적으로 비교적 폐쇄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북부지역과 중부지역, 제주도는 겹집형태를 보이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홑집형태이다. 하지만 제주도 민가는 겹집형태이면서도 상방이라 불리는 일종의 마루구조를 갖고 있는 복합적 평면구성을 보이고 있다. 겹집형태의 주거형식을 갖으면서도 북부형 田자형 평면과는 달리 상방이라는 일종의 마루형식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후스트레스에 대한 해결로 보여진다.

1) 평면특성과 기능

평면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북부형은, 정주간을 측면에 배치하며 田자형 평면의 방들이 양통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방의 배치가 안채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식 평면을 보이고 있으나, 안방과 사랑방이 인접해 있어서 안방의 폐쇄적 성격이 완화된다. 혹한지대라는 기후적 조건 때문에 고상식의 마루가 발달되지 못하고 툇마루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제주도형은 북부형과 비슷한 겹집구조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정지, 상방, 구들의 기본적인 실배열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반도의 민가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정주간과 상방

북부형의 가장 특징적인 공간이라면 정주간을 들 수 있는데, 이곳은 부엌안에 간막이 없이 온돌구조를 취하며 부엌과의 경계에 솔을 걸어두는, 다른 지방의 부뚜막을 확대시킨 형식이다. 정주간은 아궁이의 불의 열기와 온돌바닥의 난방열을 최대한 실온으로 이용하려는 혹한지방의 효과적인 공간분할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부엌과 정주간의 바닥은 보통 50-70cm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비되는 제주도형의 공간은 상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칸형 민가에서 3칸형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엌공간이 기능분화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⁴⁾

2) 주거의 기능분화 단계²⁵⁾

먼저 북부형의 기능분화 단계를 살펴보면, 일실 주거에서 온돌난방의 정주간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에서 개실의 독립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田자형 평면의 개실군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종횡분할 평면이 정형의 田자형 평면으로 발전되었으리라고 추정한다

24) 조성기, 「한국 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2('83. 6)

25) 조성기, 「한국 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2('83. 6)

다. 이러한 평면은 대가족으로 인한 부엌이나 정주간의 면적적 확대의 요구, 부엌 아궁이에서만 통할난방하는 온돌구조로서 많은 침실을 배열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면형이 유리하였으며, 열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이였기 때문이다.

제주도형의 기능분화 단계를 살펴보면, 일실 주거에서 상방적인 내용이 분화하고 부엌이 상방적인 내용을 그대로 지닌 채 개실의 독립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으로 고팡이 등장하였고 제주도형 민가의 기본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다음의 2차 기능분화 단계에서는 부침실 및 챗방의 등장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변형으로 발전해 가고, 최종적으로 부엌이 밖거리로 밀려나가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고팡이나 침실이 추가로 들어서게 된다.

이처럼 기능분화의 단계를 살펴보면 두 유형의 차이점 및 특징을 알 수 있다. 즉 북부형에서는 정주간이라는 공간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기능분화가 이루어진다. 이는 북부형 민가에 있어서 어느 평면에서나 정주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침실을 곁하게 되는 공간의 성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주도형에서는 상방을 중심으로 기능분화가 이루어진 듯 보이며 상방적 내용을 지닌 부엌이 챗방으로 기능분화하게 된다.

3)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공통점과 다른점

공통점은 우선 두 민가형이 양통형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실의 배열이 부엌+a+침실의 순서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a는 북부형은 정주간, 제주도형은 상방에 해당되는 공간이다.

다른 점은 조성기의 연구에서²⁶⁾ 같은 양통형이긴 하지만 북부형은 열경제성이나 온돌에 대한 열공급상의 문제 때문에 침실이 집중화된 형식이고, 제주도형은 주침실과 여기에서 통할 관리하기 위한 수장공간이 계획상의 단위요소가 되었고, 부엌기능의 축소로 부침실이 추가로 등장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평면의 기능분화 과정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기능분화하는 방식, 혹은 그 결과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역시 제주도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즉 제주도의 비바람의 기후스트레스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통형이 유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북부형은 실배열이 한반도의 민가의 부엌+온돌방이라는 기본형에서 출발하였으나 제주도형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두 유형에서 개실이 독립하기 이전에 가족의 주생활 공간이 북부형은 정주간, 제주도형은 마루라는 점에서 기거양식에 기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6) 조성기, 앞의 연구

기거양식의 차이는 두 민가형의 상반되는 점이기도 하지만 생활공간으로서의 상방과 수장공간으로서의 고평은 고상식 마루의 상륙설과 관련시켜 볼 때 기능적인 문제 이전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의 부엌은 취사와 난방을 겸한 공간이지만 제주도형은 분리되어 있으며 실의 기능분화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져 있다. 즉 침실이 추가될 때 그 위치가 분산되고 상대적으로 부엌의 면적이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취사부엌마저 별도로 분리되는 실의 분산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 북부형은 실의 기능분화가 활발하지 못하고, 응축된 집중적인 평면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 백령도와 비교

백령도와 제주도는 동형의 겹집구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백령도의 민가는 단동내에서의 간분화를 보이고 있고, 제주도의 민가는 채의 분화와 동시에 간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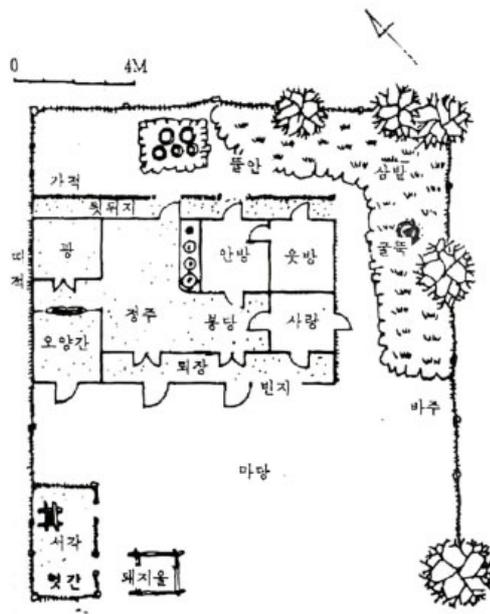


그림 4-8 백령도 이보배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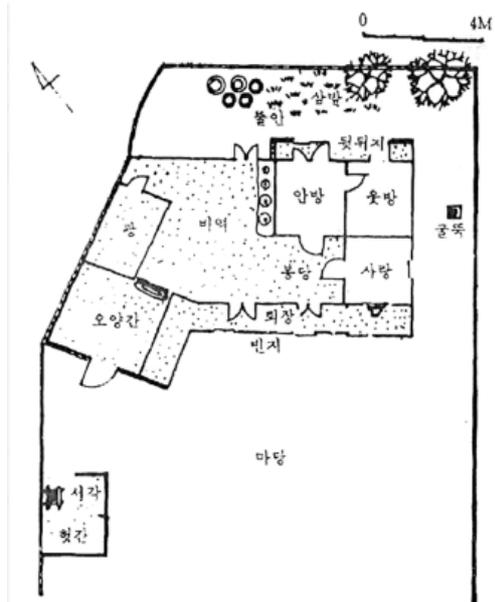


그림 4-9 백령도 김문찬씨가

우리나라 반도부의 산악내륙지역에 분포하는 민가들과 함께 백령도의 민가는 한랭 기후스트레스를 고려한 겹집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민가의 경우는 한랭이라는 기후 스트레스 이외에 습열(濕熱)과 서열(暑熱)스트레스가 또한 고려되어진 겹집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비교해보면 먼저, 제주도의 주가는 전체적

으로 한랭지의 겹집에 비해 토간의 면적보다 구들간과 판상(板床)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백령도의 겹집은 정지를 중심으로 침거기능과 부속기능을 양분하여 배치시키고 있으나 제주도는 홀(hall)식의 상방마루중심의 겹구조로서 침거실과 옥내 부속공간은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정지는 주옥내에 두지 않고 별도로 두거나 아니면 주옥내에 두더라도 측단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배치형식은 구들-상방마루-구들 혹은 구들-상방마루-구들-정지식이 되며 이는 백령도의 겹집형민가에서 정지가 침거실의 서편에 위치하고 평면상 중앙에 두어진다는 점에서 제주도 민가만이 갖는 특성으로 보여진다.

겹집형에서 주가내의 각 공간을 연결해주는 공간은 당과 마당이 되는데 당은 옥내의 지붕이 있는 마당을 뜻하는 것으로 한랭지에서의 당은 취사기능이 곁해지는 데 반해 서열지에서의 그것은 취사기능이 없는 판상의 상청이 된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공간은 상방마루로서 복합공간적 성격을 띤다. 그래서 가족간의 프라이버시 유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다른 겹집형 민가의 침거실이 3-4실이 되는 것과 달리 제주도 겹집형민가는 아무리 대농(大農)이라 해도 한 채의 가옥내에 2실 이상의 침거실은 없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가족간의 프라이버시 유지문제 이외에 침거실 뒤의 공간을 거주공간으로는 부적합하여 식량저장공간이나 가재용구 수납공간, 겹4간 구조에서는 정지와 상방마루를 연결하는 통행공간과 챗방으로 이용하게 된 데에 따른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도 겹집의 주가구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북부지역의 겹집이 단동일체형의 주가형을 보이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겹집의 다동분립형을 취해가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3) 북부형 겹집과 제주도 민가

같은 겹집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제주도는 한랭지의 겹집형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온난다습한 기후적 특성으로 상방마루라는 공간이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공간은 기후적 스트레스로 인해 옥내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지역에서 발달한 겹집구조에 있어서 내부공간들 사이의 행랑공간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전용공간으로서 여름의 양실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며 겹집의 폐쇄적인 성격을 완화시켜주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제주도 민가가 겹집구조의 형태를 띠는 이유는 공간의 기능분화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유난히 바람과 비, 그리고 여름의 태풍과 같은 기후적 스트레스에 연유할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단동일체형 주가가 아닌 다동분립형 주가의 배치를 이루게 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4. 제주도 전통민가의 평면구성 유형의 특징

제주도 전통민가에서 보여지는 건축의 지역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적으로 한랭지에서 보이는 겹집형태의 구조이며 다동분립형의 주거구성이 주를 이룬다.
- 2) 남부지방의 온도가 높은 지역에는 一자형의 민가가 대다수인데, 제주도 민가의 경우에는 건물 자체는 一자형이긴 하지만 별동 배치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비교적 폐쇄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 3) 겹집구조와 다동분립 배치로 인한 폐쇄성과 상방마루라는 공간의 개방성을 동시에 지닌다.
- 4) 상방마루가 중앙에 위치하며 육지의 온돌방에 비해 발달이 덜 된 구들이 좌우에 있다.

제2절 공간요소별 비교

1. 평면구조와 배치

(1) 평면구조

제주도와 중부의 몇몇 도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도서지역의 민가들은 홑집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서해중부 북단의 백령도와 남단의 제주도의 경우는 겹집이 민가의 일반형으로 분포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가장 격리된 두 도서에서 겹집구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홑집의 분포를 보이는 도서는 모두 연안도서로서 이는 상대적으로 비바람, 눈의 기후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홑집은 가옥의 내부의 각 공간이 간벽에 의해 서로 차단되어 폐쇄적 성격을 띠나 외부적으로는 개구율을 높여 개방성을 갖는다. 겹집에 있어서는 이와는 반대로 가옥 외부의 개구율은 낮추어져 폐쇄적 성격이 강하고 내부에 있어서의 각 공간간의 간벽은 개구부를 두어 내적 개방성을 갖게 된다. 이것 역시 민가에 주는 기후요소의 영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 배치

배치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도서지역보다도 별동 배치가 두드러지고, 좌향은 배산임수의 남향배치를 이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섬 중심에 한라산이 솟아있는 제주도 지형의 특성상 그러한 배치 방향이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즉,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제주에서는 동향, 서향배치가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북제주에서 배산임수의 입지를 선택할 경우 북향이 되는데 이는 동계에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지역에서는 불리한 배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도서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작은 섬들이기 때문에, 북좌남향, 고좌저향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가지가 상충할 경우는 지세향을 우선한다. 건물의 배치 형식도 북제주에서는 마주 앉은 형이 많다. 이는 다른 도서지역의 민가의 배치형식을 보아도 바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체로 2자형 배치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남부 영남지역과 제주도는 여러 동이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2. 공간구성

(1) 옥내공간

1) 침거공간

주실의 크기는 제주도 민가의 경우, 침거공간으로 전용가능한 곁방인 상방마루가 있어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가장 작은 면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2실은 남부도서 지역에서는 작은방이라 불리며 정지에 연결하지 않은 자녀실을 말하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조근구들이라 하여 정지에 연결하는 방을 말하고 큰 구들은 반드시 정지에 분리된다.

2) 전용공간

공간요소중에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당(堂) 혹은 청방(廳房) 등은 전용공간으로 지칭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육지의 민가에는 홑집에도 있으나 도서지역에서는 겹집이 분포하는 백령도와 제주도에만 있는 특징적 요소이다.²⁷⁾ 백령도와 제주도는 봉당과 상방마루라는 공간을 두어 다중적 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백령도의 봉당의 기능은 겹집구조에서 옥내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며, 옥내생활이 비교적 긴 이 지역에서 동계 실내보온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침거실에서 식사를 비롯해 생업과 관련된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구의 리빙룸과 같

27) 송성대, 「한국 도서지방 초옥 민가의 지역성」, 경희대박론, 1990, p.97

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봉당은 육지에서는 겹집이든 홑집이든 가옥공간의 한 요소를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토상간(土床間)으로 된다는 것이 제주도에서의 판상간(板床間)인 ‘상방(廂房)마루²⁸⁾’와 다른 점이다.

제주도의 상방(廂房)마루는 겹3간구조 이상의 민가에서는 예외없이 존재하며 평면구조상의 위치는 큰 구들과 조근 구들 사이 아니면 구들과 정지 사이가 되며 측면에 위치하는 예는 없다. 이것은 이 공간이 각 공간을 연결해 주는 행랑공간이라는 기능을 갖기 때문이며 겹집의 구조에서 없어서는 안될 공간임을 말해준다. 비바람, 눈이 있을 때 가옥 사면의 모든 개구부는 닫혀지고 옥내간의 이동은 물론 옥외간의 이동시도 상방을 통하여 하게 된다. 전면의 출입문을 대문이라 하며 제주도의 가옥은 다른 지방의 겹집처럼 주가가 울타리 내에서도 옥외 옥내로 이원적 구조를 갖게 된다. 그리고 2실 겹2간 구조에서는 뒤안과의 통로는 반드시 상방 뒷문을 이용하여야 할 정도로 상방의 행랑기능은 중시된다.

상방은 이외에 겨울의 난방유지를 위해 축소됨으로써 여름의 냉방효과를 충분히 지니지 못하는 방을 대신하여 여름의 침거실로 전용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여름의 냉방효과를 위해서 다른 침거실은 모두 중천장이나 상방만은 천장고를 높여 샷샷천장이 되고 있다. 중앙에 높은 산지를 가진 섬이기 때문에 침거실과 상방사이의 섯문을 개방했을 때 봄에서 가을까지는 해륙풍의 발달이 현저해서 단순한 환기가 아니라 바람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나타날 정도이다. 그러나 다른 도서지역의 침거실은 이러한 해륙풍의 영향을 받는 환경이 못되어 개구부가 전면벽에만 있게 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²⁹⁾

3) 수장공간

28) 앞의 송성대의 연구(p.98-100)에서 제주도의 ‘상방’이라는 공간의 호칭에 대한 설명을 보면, 상방(廂房), 상방(廂房)마리, 혹은 그냥 마리나 마루로 부르기도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은 상방(上房), 상방(床房) 혹은 대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방(床房)이란 한국은 물론 인접국의 민가공간 명칭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상방(上房)이란 공간은 한국의 반가에서 장, 농, 반단이 등을 놓는 옷목공간을, 아니면 영남지방 민가의 옷방을 한자화시킨 것이라고 한다. 또한 대청은 원래 민가의 구조에는 없었고 궁전건축에서 유래한 것으로 곡가형이 되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행랑기능 혹은 수납공간이다. 따라서 육지에서는 민가의 봉당에 당판(堂板)을 깔아 대청 혹은 마루라 불리워져 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상방(廂房)이라는 전용공간은 호칭에서부터 다르고 원초적 구조와 기능에서 모두 봉당과는 동형이 질적이고 중국민가에서 볼 수 있는 당(堂)이 아닌 방과 방의 사이를 끼고 있다라는 상방(廂房)이 구조는 다르지만 기능과 형태에서 보다 동질인 면이 보인다. 그러나 원래는 구들이 놓아 있지 않고 건초를 깔은 토간방(土間房)이다 해서 ‘북덕방’이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29) 송성대, 앞의 책, p.100

울릉도에서는 상자형의 양식저장 방식이 취해졌으며, 원산도와 거제도에서는 협소하나마 정지 앞퇴를 이용한 공간이 형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원산도는 주옥의 후면벽 뒤에 광을 만들어 사용하며 거제도는 도장방이라는 공간을 바깥채의 아랫방에 연하여 만들어 사용하고 아니면 ‘안청(퇴는 바깥청이 됨)’이라는 남부호남도 서지방의 마루에 해당하는 공간을 두게 된다.

남부호남도서지역 민가의 수장공간은 건물이 홑집의 단동일체형이 되어 주옥 내에 두어지고 이때 반드시 큰방에 연접한 한 칸으로 존재하며 마루, 말래, 말리 등으로 분리워진다. 이 공간은 폐쇄적으로 전면의 문도 판문이며 통풍을 위한 후면벽의 문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양실(涼室)로서의 기능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간은 홑집의 단동일체형의 구조에서 최대의 공간활용을 위한 과정에 있어 신앙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기도 한다.

제주도 민가의 수장공간은 호남도서지역에서와 같이 큰 구들에 연접하여 있는데 원래는 습기방지를 위해 널마루가 놓여지는 것이지만 소농에서는 흙과 돌로 마루를 만들어 이용하기도 한다. 이외에 뒷퇴에 대부분 식기를 넣어두는 장방을 시설하여 구조체로서의 기능과 동시에 수장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백령도는 수장공간이 울릉도와 원산도처럼 침거공간과 연접하지 않는 또 하나의 도서지역이다. 즉 안방에서 정지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두어지는데 다우다습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루를 만들지 않고 정지와 같은 토간이 되는 것이 특색이다.

4) 취사공간

취사공간에 있어서 제주도는 유일하게 분구 분리식 취사체계를 갖고 있고 구들도 허튼 고래이다. 그리고 나머지 전도서 지역에서는 분구의 정지집중형을 보이고 있다. 즉 조리하는 분구와 구들에 열을 가하기 위한 화구가 일체식으로 되어 있으며 중부도서는 통고래, 남부도서에서는 홀고래의 취난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제주도 민가가 취난연료와 다풍지대의 특성상 굴뚝을 설치하지 않는 반면, 다른 도서지역에서는 두 개의 굴뚝을 세워 연소를 돕도록 하거나 높은 굴뚝을 공통적으로 갖는다. 굴뚝은 제주 민가의 구들의 채난을 위한 전용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5) 행랑공간

행랑공간으로서 옥내에 별도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마당이 작업공간과 함께 행랑공간을 공유한다. 그리고 겹집구조를 갖는 백령도와 제주도에서는 전용공간인 봉당과 상방마루가 행랑공간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2) 매개공간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에 걸쳐 있는 반내부, 반외부공간을 매개공간으로 볼 때, 전통민가에서는 퇴가 이러한 공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전통민가에서는 좌우의 퇴는 반드시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후의 퇴는 모두 나타나고 있다. 앞퇴의 경우는 주로 일광과 비바람의 여과,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완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뒷퇴의 경우는 대부분 식기를 넣어두는 장방을 시설하게 되어 구조체로서의 기능에 더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즉, 퇴칸과 퇴기둥은 풍하중과 관계되는 구조체라 가정할 수 있다. 뒷마루의 폭은 남해도서지역보다 짧은 편이며, 제주도 내에서도 북제주에서 남제주에서보다는 짧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칸길이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칸의 길이가 길어지면 바람의 수압면이 많아지고 바람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3) 옥외공간

1) 진입공간

무엇보다도 ‘올래’라는 공간이 중요한 옥외공간요소가 되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적인 공간이 된다. 이 공간은 진입로로 기능을 하며 끈게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휘어짐으로써 집안으로 바람이 쉽게 드는 것을 방지한다. 이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신앙적인 의미를 비롯하여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기후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공간의 현대적 적용은 실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신앙공간

또 하나의 제주도의 특징적 옥외공간을 들자면 ‘안 뒤’라는 공간을 들 수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 전통민가의 신앙공간은 옥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특징적으로 옥외에 위치한다. 이곳은 안거리 내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무속신을 모신 신성공간이다. 이곳은 이러한 상징적 의미로서의 공간외에 통풍에 있어서도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일단 이곳에 상록수를 식재하여 방풍과 그들의 효과를 꾀하게 되며, 마당에서 상승기류가 생기면 안뒤의 공기가 마당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때에 대청 뒷문의 조그만 통로를 지나게 되면서 공기의 유속이 빨라지게 되고 대청에서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3) 작업공간

외부의 작업공간이라 하면 마당을 지칭한다. 주가에 있어서 마당은 겹집에서 옥내에 있는 봉당 혹은 제주도의 상방마루와 같이 공간간을 연결하는 행랑기능과 작업 그리고 큰 일이 있을 때의 행사기능 및 놀이공간 기능, 방풍과 인재와 수재(獸災) 등의 방재기능을 아울러 갖는 지붕없는 전용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³⁰⁾ 도서지역 민가는 대부분 단일 마당을 갖고 있으면서, 육지의 옥외 작업 및 행랑 기능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중부도서지역에 비해 남부도서지역의 마당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협소해지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겹집이지만 다풍다우지대이므로 장풍(藏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타의 도서등에 있어서도 장막벽과 같은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홑집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가옥으로서 주옥의 면적에 준하는 적정한 마당면적보다 더 넓게 해서는 불리하여 좁아지고 있다. 마당의 형상은 남부도서지역들은 사면의 지형상에 자리하기 때문에 주옥과 나란한 횡장방향으로 만들어 뒤에 공간이 없어 부옥이나 장독대 혹은 측간을 배치함으로써 평면적만으로는 정방형의 마당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성토에 의한 매립과정이 없이 바로 생토(生土)에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가옥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마당도 횡간격이 좁아져 유효한 면적을 갖기 위해서 종간격을 넓혀 장방형이 되도록 하는데 이때 방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옥이 배치 안되는 부분은 울타리를 가까이, 높게 쌓아줌으로써 완성시키고 울타리의 기능이 없는 장독대나 측간 등은 결코 열린 선을 따라 배치하지 않고 구석진 곳에 두어진다.

4) 노적공간

장독대는 보통 정지 앞에 놓여졌으나 풍세가 보다 강하거나 축우영농의 전통이 있는 도서에서는 집뒤나 옆에 두기도 하였다. 옥외공간 중에서도 노적공간은 제주도의 경우, 사료와 연료가 건조엽경(乾草葉莖)이었기 때문에 특징적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 밖의 지역의 노적공간은 부옥 내지 연료 저장공간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5) 채전

울릉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울타리 안에 만들어지고 있으나 울릉도만이 텃밭에 마련되고 있다.

30) 송성대, 앞의 책, pp.115

6) 배변공간

제주도의 경우 인분을 돼지의 사료로 하는 양돈축간이 남아 있다. 이는 단순히 축간이 인분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퇴비생산이라는 보다 중요한 목적에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의 도서에서는 수거축간, 잿간을 겸하는 수거식 형태이며 건분으로 채전이나 경지에 시비하고 있으며 대부분 단순히 인분처리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다.

7) 방호물

울타리는 모든 도서에 대부분 설치되나 대문시설은 거의 없다. 중부도서지방에서는 울타리의 재료로 수수깡과 옥수수깡 등을 사용하여 바자울을 만들어 설치한다. 이는 설풍을 막기 위해서 내구성은 없지만 구하기 쉽고 풍하과동을 고려할 필요없이 단지 설책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4방면을 담울로 위요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바람으로부터 집을 보호하고 적절히 폐쇄된 외부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외부에서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대문은 거의 갖추고 있지 않지만 제주도의 경우, 정낭이라는 책문을 두고 있다. 정낭은 방목하는 우마의 가택침입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³¹⁾

3. 의장요소

(1) 가구요소

1) 기단

기단높이는 전체적으로 10cm이하이거나 평균 15.8cm 정도로 한반도 민가에 비해 30-45cm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인다. 그리고 남부해안지역에서도 도서지역은 평균 17cm, 임해지역은 평균 21cm, 내륙지역은 평균 44.3cm로 내륙으로 갈수록 기단의 높이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서지역과 해안지역에서는 되도록 건물의 높이를 낮게 하여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2) 기둥

31) 신화경, 「제주도 민가의 형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 사회과학연구 9(‘96.12), p.349

제주도 민가의 기둥의 높이는 육지와 다른 도서지역과 비교해볼 때 일반적 높이보다 낮으며 마루에서 처마도리까지의 높이도 낮은 값을 보인다. 이것도 역시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단, 마루, 처마도리 높이를 가급적 낮게 함으로써 외부공간의 수직요소를 가능한 낮게 조절하는 방법들로 보여진다. 제주도내에서도 북서지역의 민가가 나머지지역보다 더 낮게 지어진 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벽체

도서지역에서는 내력벽에 비해 장막벽이 발달하였는데, 이는 풍우설(風雨雪)의 기후 스트레스가 도서지역에서 심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벽은 담벽으로 이루어져 독특한 경관을 보여주는데 외벽의 경우는 2중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회색 다공질 현무암으로 막쌓기하였다. 그리고 벽의 모서리부분, 정지 앞, 굴목 출입부분 등은 각이 지지 않도록 쌓아 올려 바람의 영향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외벽은 내력벽이 아닌 장막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조구체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처마 밑 30-45cm 아래 높이까지 쌓는다. 다른 지역에서는 울릉도의 경우 우테기, 백령도는 가적, 원산도의 경우 띠우작같은 장막벽이 나타난다. 제주도에서 담벽이 주로 쓰였던 것은 무엇보다 제주도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돌(현무암)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처마

처마는 수평차양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처마가 깊으면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풍동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새'로 지붕을 엮어 매었다. 그리고 처마의 높이가 낮으면 마찬가지로 바람에 의한 건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처마는 낮고 깊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외부경관

1) 지붕

지속적이고 강력한 풍우는 낮고 완만한 경사의 지붕과 가구형태를 형성하게 하였다. 용마름을 없게 하는 부채 이엉법이 쓰여 마루가 없는 유체역학적으로 유리한 유선형 지붕이다. 그 이외의 도서지역에서는 사슬 이엉법이 많이 쓰이나 소우 건조지역, 다우다습한 지역에서 잘 쓰이는 비늘 이엉법은 없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지붕

물매³²⁾가 현저히 낮아 돛 모양의 내풍적 형태를 띠며 새끼를 꼬아서 격자형으로 촘촘히 짜여져 지붕을 누름으로써 바람의 피해를 적게 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제주도만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한다.

2) 개구부

개구부의 폐쇄의 상태나 크기는 일차적으로 지역의 자연조건을 따른다. 개구부는 문(門)과 창(窓), 호(戶)로 이루어진다.³³⁾ 일반적으로 문이라고 하면 대문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곁집형의 민가에서의 대문은 봉당이나 상방에 면하여 있는 큰 문을 지칭한다. 이때의 대문은 주가와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통합된 통로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홑집의 민가에서 가옥에 딸려 만든 문을 대문이라 부르는 경우는 전무하다.

민가의 개구부는 전용성이 없고 침거공간의 방문은 창과 문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창문이라 하고 기타 공간의 출입을 위한 개구부는 문이라 부르고 있다.

개구부의 배치는 가옥의 좌향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불리한 자연적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전면출입가옥인 경우 뒤쪽에 최소한의 출입을 위한 정지뒫문만이 있게 되지만 백령도와 같이 田자형의 평면구조를 갖는 곁집인 경우, 다습고온에 대응한 남부도서지역의 민가는 안방뒫문을 내기도 한다.

홑집의 침거공간을 지나 우데기라는 장막벽을 만들어 곁집에 유사한 구조를 갖는 울릉도 민가는 채광과 불규칙한 강풍향에 의한 출입을 선택하기 위해 북벽을 제외해서는 가능한 개구부를 만들고 있다. 겨울의 북서계절풍이 폭설을 동반하며 지속적으로 불어 닥치며 울릉도보다 늘 3-4℃의 기온이 낮은 흑한의 백령도의 경우 정침실(正寢室)이 전형적인 곁집구조를 보여 후면 벽의 개구율이 전면 벽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같은 곁집구조를 갖는 제주도에 있어서는 옥내환경 조절기능의 창문의 개구는 가옥좌향과 불일치를 보이는 중북부의 곁집민가와 달리 좌향일치형으로서 반드시 마당에 면하도록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전면 벽의 개구율은 후면 벽의 배정도가 되며 좌우의 벽에는 개구부가 없다. 즉, 좌우벽은 장막벽이 설치되어 취난공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후면 벽을 면해서는 비침거공간인 저장공간으로서 고팡아니면 골방 혹은 정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을 위한 최소한의 개구외에는 없게 된다. 침거실

32) 제주도 민가의 지붕의 경사는 도서지역 중에서도 20°의 가장 낮은 값을 가지며, 다른 도서지역에서는 평균 32°의 값을 갖는다.

33) 이들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으며, 창(窓)은 사람의 출입과 관계없이 채광, 환기와 통풍, 배연, 조망 등만을 위한 것이고 호(戶)는 건물에 딸린 것으로 옥내간 혹은 옥외간의 출입을 위한 개구부로 외쪽이면 '지게문' 양쪽이면 '문'이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송성대, 앞의 책, p. 73

도 그와 같은 평면구조로 인해 홑집 또는 겹집에서 보이는 후면 벽의 개구는 있을 수 없고 결방인 상방이라는 공간과의 간벽(間壁)에 전면의 개구부만큼 개구하여 사잇문을 달고 있다. 이 상방 사이의 개구부의 기능 혹은 형태는 제주도민가가 갖는 유별한 것으로 다른 지역의 이러한 형태의 사잇문이 없는 예가 많고 있다하더라도 단순히 출입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출입기능 이외에 다습하고 고온의 여름에 상방 뒷문과 연결되는 통풍로의 배려가 중요하다.

남해와 서해 중남부 도서의 홑집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주벽과 침거실벽 모두 전면 벽의 개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조적이다. 따라서 남서해안 도서민가의 후면 벽의 개구부는 대부분 정지와 뒤안과의 출입을 위한 그리고 취사시의 배연을 위한 문으로 판문이 되고 있으며 풍우설이 심한 남해서안 도서들에 있어서는 정지 뒷문이 있는 부위에는 정지되나 공통적으로 좌우에 모두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한쪽에만 개구하는 경우가 있다.

다동분립형의 남해 동안의 영남도서들에서는 홑집이나 옥내에서 각 방을 연결하는 개구부는 없고 단지 퇴라는 행랑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동일체형의 남해 서안도서민가에서는 안방에 연하여 마루라는 곡간을 두기 때문에 이와의 연결을 위한 문이 있고 정지와 연결되는 문도 간혹 있다.

제주도의 창문은 개방성을 지향함과 동시에 풍파를 의식하여 크기를 작게 한 양쪽문(80×160cm)이 되고 있으나 보길도를 제외한 기타의 도서들은 외쪽문(60×120cm)으로 되어 있고 다만 창문옆에 봉창(40×55cm)을 내어 보조창으로 이용하고 있다.

개구부를 보면 문을 두쪽으로 하는 등, 개방성을 지향하면서도 옆벽면과 후벽면은 최소한의 개구부를 두고 외부로 노출된 문은 두꺼운 판장문 혹은 이중문으로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폐쇄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도 다풍다습한 산남지역은 상방대문 옆에 작은 재창문이라는 판문이 설치되어 다른 도서지방의 안방에 달린 봉창문 처럼 풍우설시에도 채광과 배연 및 통풍을 하도록 한다.

개구율도 다른 지역보다 약 5-10%더 높다. 이것은 바람이 많은 지역일수록 개구율도 높아야 그 영향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습도가 높아 개구부는 넓고 높다. 비바람에 창호를 보호하기 위해 판장덧문이 설치된다.

3) 방풍시설(돌담과 방풍림)

돌담은 현무암 잡석을 높이 약1.7m로 쌓아 공간구획, 방풍의 기능을 하며, 주요 경관 요소가 된다. 돌담의 높이는 도서지역을 비롯한 다른 한반도 민가등에 비해 서도 높게 나타나며, 제주도 전통민가의 도리 높이가 낮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담

의 높이는 더 높아져 외부에 대해 매우 폐쇄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제주의 담높이가 평균 15cm이상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담을 높게 쌓음으로써 바람의 영향을 감소시키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돌담 이외에도 식재를 함으로써 방풍림을 조성하여 바람의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돌담에 인접해서 방풍림을 조성하는데, 이때 높이와 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당한 밀도의 방풍림에서, 직각으로 바람이 불어올 때 높이의 5배 이내 범위에서 62-78%가 감소하고 5배에서 10배의 범위에서는 24-62% 감소한다.

(3) 재료

1) 지붕재료

도서지역에서 이용되는 초옥의 지붕재료는 띠(茅), 벚짚, 억새 등의 주로 3종이 된다. 띠는 제주도에서, 억새는 울릉도, 기타의 도서에서는 벚짚이 된다. 이 중에서 제주도에서 쓰이는 띠는 경량의 식물성 재료로서 엽경에 각피가 잘 발달하고 유성분이 많은 저흡수성이기 때문에 건조가 빨라 유리한 재료로 취급한다.

2) 벽재료

벽재료로는 우선 돌과 흙, 그리고 나무가 주로 쓰인다. 이중벽구조로 외벽은 암회색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둘러쌓은 것이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특색을 이루고 있다. 내벽은 토벽상태가 되거나 토벽위에 도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팡, 내실상방 등은 전체의 하반을 목판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많다.

제 V 장 제주도 지역성의 앞으로의 건축에의 적용

제 1 절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 종합 논의

1. 전통민가에서 보이는 제주도 건축의 지역적 특성

추운지역에서 유리한 겹집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폐쇄적 형태를 지닌다. 그와 동시에 홑집에서 보이는 마루의 개방적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연중 기온이 높은 제주도의 기후 특성상 온돌구조가 덜 발달되었으나 바람이 많이 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적 특성을 보인다.

1. 마당을 중심으로 별동 배치를 하여 전체적으로 폐쇄적 형태를 지닌다.
2. 좌향은 남향배치를 선호하나 북사면에서는 동향이나 서향이 유리하다.
3. 상방마루라는 공간요소는 각 공간을 연결해주는 행랑공간의 기능과 여름에 침거실로 전용되는 기능을 지닌다. 겨울에는 옥내 작업공간으로도 활용되며 여름에는 통풍효과를 높여주어 제주도 기후의 특성에 적절한 공간 구성을 가능케 한다.
4. 겹집구조와 다동분립형 배치의 폐쇄성과 함께 높은 개구율과 상방마루 공간의 개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5. 제주도 전통민가에서 전후의 되는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에 대한 구조적인 역할과 함께 비바람의 여과, 작업공간 및 수납공간으로서의 기능 등 작지만 많은 효과를 지닌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6. 전체적인 외관은 지붕을 엮어낸 새끼줄과 낮으막한 돛형태의 지붕모양, 전체적으로 낮은 높이의 입면구성, 그리고 건물을 둘러싼 돌담의 폐쇄적 형태와 돌로 된 벽체의 특징적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실의 기능분화가 자유스럽고 분산적인 경향이 강하다.
8. 올래(도입부)-올래목(전곡부)-마당(발전부)-안뒤(종결부) 리듬의 독특한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다.

2. 제주도 현대건축의 사례고찰

(1) O씨 주택(1988)

‘전돌’ 외장재를 사용하여 지은 집이다.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올래를 통하여 대

지에 이르게 되어있는 조건하에서 주위환경을 고려한 건물의 형태와 평면으로 짜여져 있다. 건물 전면에 그다지 넓지는 않지만 테라스를 두었고 상부를 지붕으로 덮었다. 그로 인해 생기는 채광문제는 톱 라이트로 해결하고 있다. 전돌이라는 재료의 질감을 효과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인 아래의 공간과 건물 전면의 테라스 공간은 매개공간으로서 기능한다.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비교적 높아 보이는 기단이 서구적인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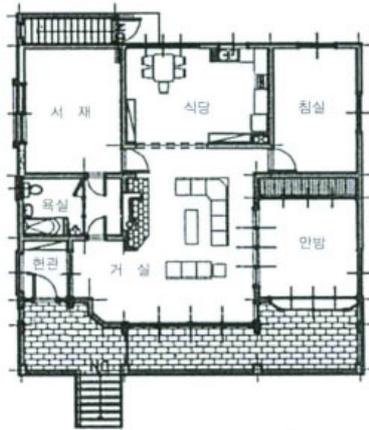


그림 5-1 O씨 주택 평면도



그림 5-2 O씨 주택

(2) 과원주택(1984)



그림 5-3 과원주택

이 건물은 감귤농장에 자리잡고 있는 과원주택이다. 자연적인 지형조건을 활용하여 아래층에는 감귤 등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윗층은 주거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조적조로 시공되었으며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춰 자재선택에 있어서도 향토성을 강조했다. 제주의 자연석을 비롯해 송이, 목재 등을 고루 사용하였다. 자연과의 조화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으며 저장고는 자연석의 거친 구조형태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붕의 수평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 전통민가의 전체적으로 낮은 경관과 지붕을 떠올리게 한다.

(3) 연동주택(1999)



그림 5-4 연동주택 외관

기존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증축한 프로젝트이다. 전형적인 양산형 주택으로 형태적인 자극이 필요하였으며, 중앙의 전면 파라펫을 헐어내고 잡철 핸드레일과 철제 캐노피를 설치하여 정면성 확보 및 1, 2층의 매스 통합을 유도하였고, 주방의 확장면과 옥외계단의 구조적 장식에 의해 제주 민가의 특성인 이중 표피구조를 부분적으로 표출하였다. 지

붕매스의 분할을 통해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기능적으로는 천창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철제 캐노피의 형태는 전통주택의 풍채를 연상하게 하며 거실을 중심으로 내부공간이 배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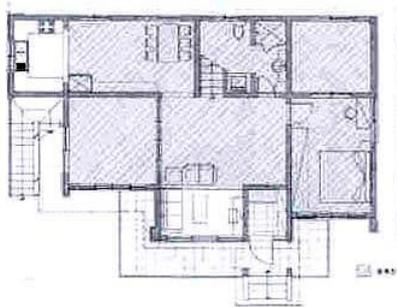


그림 5-5 연동주택 1층 평면도



그림 5-6 연동주택 캐노피

(4) 현씨주택(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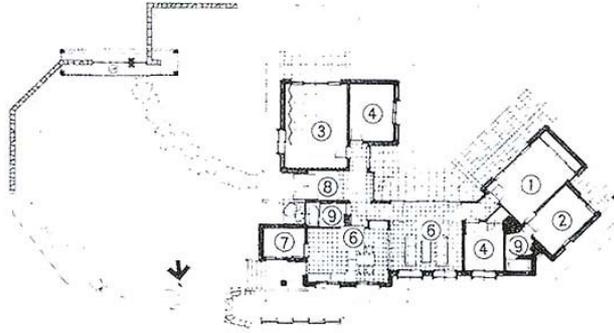


그림 5-7 현씨주택 외관

비교적 오래된 주택이며 마당, 채분할, 앞뒤로 트인 거실 등 전통민가가 가진 어휘가 이 주택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제주의 자연석, 송이지붕, 무채색을 기조로 하는 외부색채는 이 주택의 인상을 말해준다. 외부를 둘러싼 돌담과 수

평성이 강조된 지붕, 바깥마당과 건물로 둘러싸인 안마당이 건물의 채를 분할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마당은 열리게 하여 거실의 시계를 트이게 하면서 마주

선 방과 방의 시선이 빗겨지게 하였다.



①안방 ②침실 ③한식서재 ④아동방 ⑤가족실
⑥식당 및 부엌 ⑦부엌방 ⑧현관 ⑨욕실

그림 5-8 현씨주택 평면도

(5) 이씨주택(1997)



그림 5-9 이씨주택 외관



그림 5-10 이씨주택 외관

계획의 기본개념은 3대가 함께 공유하는 주택평면의 제시와 올래, 정낭 등의 공간진입방식, 마당과 안뒤의 공간구성 개념을 가지고 있다. 주거부분을 중심으로 주차공간과 마당공간을 분리시켜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로축과 평행하게 배치된 가벽은 햇빛 및 계절풍, 도로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마당을 중심으로 각 공간의 채광을 확보하며 거실 뒤의 안뒤공간은 공간적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전체적으로 단순명료한 외관의 구성과 향토성이 강한 송이 벽돌로 외벽 마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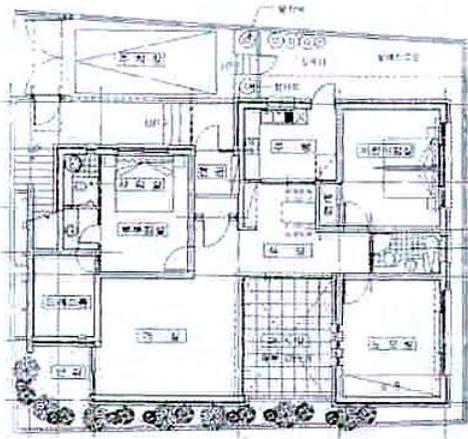


그림 5-11 이씨주택 평면도

(6) 기타 현대건축

1980년대에는 제주도에 비교적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건축되었고, 제주건축의 지역성과 향토성에 대해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다.

탐라도서관(김석윤, 1989)은 대칭적 요소와 제주도 건축이 지니는 폐쇄성과 개방성 및 외부공간과의 조화, 그리고 빛마루와 같은 매개공간을 도입하여 제주건축의 언어를 현대적으로 세련된 표현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림 5-12 탐라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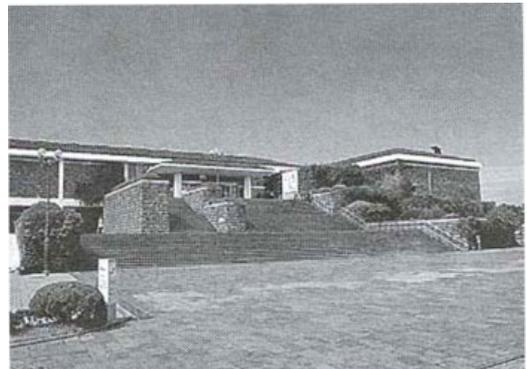


그림 5-13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전면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김홍식, 1984)과 기당미술관(김홍식, 1984)은 제주도 지역성에 대한 독특한 접근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각 공간구성을 율(律)의 의미로 해석하는 천(天)이 되는 태양과 소양, 지(地)가 되는 태음과 소음의 4분법적 공간구성에 접근하고 있으며³⁴⁾, 건축형태에 있어서는 전통초가와 늘의 형태 언어를 도입하여 지역

34) 김태일, 제주건축의 어제와 오늘, 건축사-9911, p.48

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민속자연사 박물관은 중정과 정문에서부터 길게 유도되는 우회적인 진입방식, 경사지의 지형조건에 맞게 몇 단계로 구분된 계단을 통해 주진입구에 접근하는 진입방식 등을 통해 전통적 언어를 현대적으로 구체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5-14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그림 5-15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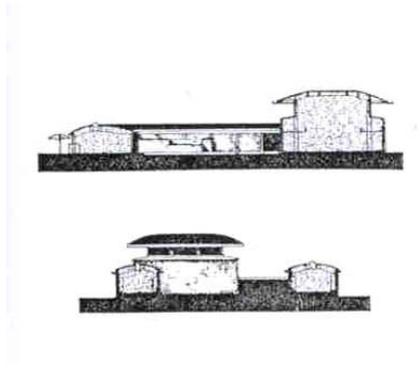


그림 5-16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입면도



그림 5-17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의 중정



그림 5-18 기당미술관



그림 5-19 놀의 경관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규모와 기능에 상관없이 제주 전통건축 요소들 중에서 형태적 요소를 직설적으로 해석하여 현대건축에 도입하고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적용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없이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은 현대건축에 있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느낌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연환경과 그 보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문제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타지역 사람들의 제주도에 대해 느끼는 이국적인 인상으로 인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등에 있어서 ‘이국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국적불명의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통호텔 씨빌리지(김인철, 1991)는 제주의 전통초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의 호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호텔건축의 새로운 사례로서 소개되고 있다.



그림 5-20 한국전통호텔 씨빌리지



그림 5-21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김기웅, 1992)은 제주 고유의 재료인 송이를 이용한 송이 벽돌을 사용함으로써 풍토적이면서 현대적인 느낌을 동시에 획득하고 있다. 제주의 전통민가의 지붕에서 따온 듯한 완만한 지붕의 곡선과 구체의 조형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붕을 동판으로 처리해, 다소 이질적인 느낌마저 준다.

탐동공연장(김용철, 1995)은 제주의 방사탑에서 그 형태적 언어를 차용하여 지역성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다소 직설적인 느낌을 주어 건축적 언어의 호소력이 약해지는 감이 있다.

핀크스골프장(PINX Golf Club)은 두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이타미 준이 설계한 작품인데, 이 건물은 지평면에 놓여진 돌덩어리와 낮은 구름의 반은 파묻혀 지면에 동화된 듯 자리잡고 있으며 그 상부의 입방체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듯한 건축적 형태를 하고 있다. 최대한 지형에 순응하는 듯한 이 건물은 구릉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2층은 지면과 맞닿게 설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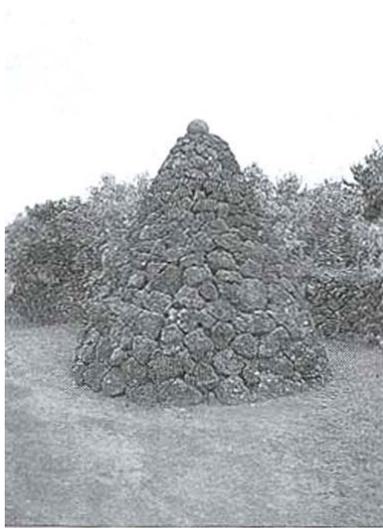


그림 5-22 제주도 방사탑



그림 5-23 탐동 해변공연장

2층으로 들어서면 곧바로 접하게 되는 식당은 제주의 바다와 오름의 독특한 자연의 편안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와 닿는다. 멀리 보이는 한라산과 많이 닮아 있는 전체적 외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대한 자연과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재료의 현대적 쓰임새 역시 돋보이는 작품이라 여겨진다.



그림 5-24 핑크스 골프 클럽 전체외관



그림 5-25 핑크스 골프 클럽 전면

3. 소결

이상에서 제주도 현대건축의 몇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형태적인 어휘에 많이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일단 위에서 살펴본 결과 현대건축에서 지역성이 표현되어지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평면적 특성

- ① 제주도 전통주거와의 연계성에 의한 평면을 지향한다.
- ② 마루를 중심으로 남향 배치한다.
- ③ 마루 혹은 거실을 개방적으로 한다.
- ④ 주방과 화장실의 위치가 특수하다. 화장실을 격리시키거나 외부에 배치, 주방은 거실 후면의 좌우측에 둘 수 있으나 거실과 같이 전면에 평행배치하지는 않는다.
- ⑤ 핵가족 중심의 평면단위 구성을 선호한다.

(2) 입면적 특성

- ① 바람 등의 자연환경에 의하여 층고가 낮다.
- ② 캐노피가 돌출된다.
- ③ 여름철에 대비하여 북쪽창을 크게 낸다.
- ④ 지붕은 전통주거의 초가지붕의 형태를 지향한다.
- ⑤ 향토자재(제주잡석, 현무암타일, 송이 등)를 사용한다.

제2절 제주도 현대건축에의 적용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현대건축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들을 제안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제안하게 될 현대건축에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건축 패턴 어휘의 연구에서 계획구성요소들을 빌려와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 개념과 원칙을 세우고 그 개념하에 구성되었다. 자세한 각 요소별 계획내용은 결론 부분에서 표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각 계획구성요소들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기본 계획개념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1. 배치

① 공간계획요소

- 건물의 정면, 주현관, 동선영역, 주건물, 대지의 정비, 남향의 옥외, 건물의 채광

② 기본 계획개념

- 분동 배치(복합건물) : 건물의 배치는 단독 건물보다는 여러 기능을 지닌 건물로

분리하여 배치한다. 그래서 집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바람을 최소화하고 외부공간에서의 작업도 용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요감을 형성한다.

- 북사면에서는 동향, 서향배치가 유리하다.
- 외부의 중심공간을 중심으로 구심적 배치를 한다.

2. 공간구성

(1) 옥내공간

① 공간계획요소

- 공동영역(대청, 마루), 내부통로, 랑하(廊下), 방, 기타침실, 실내채광, 동측취침, 수장공간

② 기본 계획개념

- 켜의 형성 : 적절한 켜를 형성함으로써 바람이 주실로 직접 침입하는 것을 방지 하되, 여름에는 통풍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므로 폐쇄적 개념의 켜가 아닌 개방적, 반개방적 개념의 켜를 형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지붕이 있거나, 반개(半開)의 벽체를 갖춘 공간, 혹은 테라스 정도의 반외부 공간을 만든다.

(2) 매개공간

① 공간계획요소

- 현관, 테라스

② 기본 계획개념

- 여러 겹의 공간을 형성함에 있어서 전통민가의 '퇴'라는 공간은 옥내와 옥외 공간 사이에 위치하면서 옥내공간을 둘러싸면서 하나의 공간 층을 형성한다.
- 이러한 매개공간을 잘 활용하여 개방적이면서도 겨울에는 적당히 폐쇄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매개공간의 폭은 너무 넓지 않게 하여 과도하게 큰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구조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옥외공간

① 공간계획요소

- 주현관, 옥외실, 정원, 입구의 전환, 공지의 계층화, 중정(마당), 보행로, 채원

② 구성방식

- 마당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심적으로 배치한다.
- 진입공간-마당- 안뒤로 이어지는 공간의 구성을 활용한다.
- 단조로운 단순한 골목의 의미를 가진 공간이 아니므로 다양한 공간전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진입부에서는 건물 정면이 보이지 않도록 너무 큰 공간이 되지 않게한다.

3. 의장요소

(1) 기단

① 계획요소 및 내용

- 낮은 기단

② 기본 계획개념

- 전통민가의 기단이 낮다고 해서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높아 보이는 기단은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서구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 기단을 평면적으로 그리고 입면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평면적으로 해석하여 공간 계획을 할 때, 기단은 매개공간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료

① 구성요소

- 돌(현무암), 송이

② 기본 계획개념

- 돌, 나무, 기와 등의 절제된 사용으로 시각적 질서를 통일과 조화로 가장 근본적인 디자인 원칙을 지키며 지면으로부터 지붕쪽으로 마감의 계층성을 두어서 정연한 재료 사용의 질서성을 보인다.

(3) 지붕/ 천장

① 계획요소

- 보호지붕, 천장고의 변화

② 계획개념

- 깊은 처마와 편평한 지붕면의 음양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효과적인 외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4) 벽

① 계획요소

- 반개(半開)의 벽체, 후벽(thick walls)

② 기본 계획개념

- 폐쇄적인 형태와 개방적인 형태와의 균형을 이루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주도의 기후특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막벽을 이용하여 기본 구체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한다.
- 돌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제주특유의 경관적 특성을 살리는 이중적 벽을 구성한다.
- 모서리 부분 등은 각이 지지 않도록 한다.

(5) 개구부

① 계획요소

- 실내창, 양면채광, 건물의 단부, 해반이 장소, 북측면, 가로측 개구부, 외랑, 발코니, 가로에 면한 창, 대지에의 연결, 측문

② 기본 계획개념

-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계획이 되도록 가변적 요소를 활용한다.
- 배치에 따른 개구부 위치를 적절히 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며 속도를 늦출수 있도록 한다.
- 바람이 많은 제주도의 기후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절에 따른 효과적인 구성을 하도록 한다.
- 여름에는 최대한 바람을 끌어들이면서 태풍을 막을 수 있는 개방적이면서도 폐쇄적인 이중의 효과를 기대한다.

(6) 담

① 계획요소

- 정원담, fin wall

② 기본 계획개념

- 바람의 영향을 최소로 하는 적절한 담의 배치
- 제주도 특유의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돌)
- 돌(현무암)이라는 재료를 적절히 활용한다.
외관상으로 견고한 벽보다는 틈새를 이용하는 벽의 디자인
- 방풍시설로는 주로 돌담과 방풍림을 이용한다.
- 방풍림은 돌담과 인접해서 조성하며 적당한 밀도로 식재한다.

제VI장 결론

늘 전통과 건축, 그리고 지역성의 접점에서 고민되어지고 논의되어지는 것들은 제주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듯하다.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성과 건축의 관계는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의 문제는 지역성과 건축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축적되어 온 경험이 바탕이 된, 늘 현재에서 점검해야 할, 되돌아 봐야 할 참고서 내지는 지침서, 혹은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일 수도 있겠다.

간단히 앞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제주도 전통민가에서 살펴본 건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마당을 중심으로 별동 배치를 하여 전체적으로 폐쇄적 형태를 지닌다.
2. 좌향은 남향배치를 선호하나 북사면에서는 동향이나 서향이 유리하다.
3. 상방마루라는 공간요소는 각 공간을 연결해주는 행랑공간의 기능과 여름에 침거실로 전용되는 기능을 지닌다. 겨울에는 옥내 작업공간으로도 활용되며 여름에는 통풍 효과를 높여주어 제주도 기후의 특성에 적절한 공간 구성을 가능케 한다.
4. 겹집구조와 다동분립형 배치의 폐쇄성과 함께 높은 개구율과 상방마루 공간의 개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5. 제주도 전통민가에서 전후의 되는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에 대한 구조적인 역할과 함께 비바람의 여과, 작업공간 및 수납공간으로서의 기능 등 작지만 많은 효과를 지닌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6. 전체적인 외관은 지붕을 얹어맨 새끼줄과 낮으막한 돛형태의 지붕모양, 전체적으로 낮은 높이의 입면구성, 그리고 건물을 둘러싼 돌담의 폐쇄적 형태와 돌로 된 벽체의 특징적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실의 기능분화가 자유스럽고 분산적인 경향이 강하다.
8. 올래(도입부)-올래목(전곡부)-마당(발전부)-안뒤(종결부) 리듬의 독특한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요즘 현대건축에서 보여지고 있는 지역성 표현의 방법들과 계획요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평면적 특성

- ① 제주도 전통주거와의 연계성에 의한 평면을 지향한다.
- ② 마루를 중심으로 남향 배치한다.
- ③ 마루 혹은 거실을 개방적으로 한다.
- ④ 주방과 화장실의 위치가 특수하다. 화장실을 격리시키거나 외부에 배치, 주방은 거실 후면의 좌우측에 둘 수 있으나 거실과 같이 전면에 평행배치하지는 않는다.
- ⑤ 핵가족 중심의 평면단위 구성을 선호한다.

(2) 입면적 특성

- ① 바람 등의 자연환경에 의하여 층고가 낮다.
- ② 캐노피가 돌출된다.
- ③ 여름철에 대비하여 북쪽창을 크게 낸다.
- ④ 지붕은 전통주거의 초가지붕의 형태를 지향한다.
- ⑤ 향토자재(제주잡석, 현무암타일, 송이 등)를 사용한다.

이러한 요소들 외에, 제주도 지역성을 표현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건축언어, 계획요소들을 제안함에 있어, 전통민가의 고찰에서 얻어진 개념과 요소들을 참고하여 나름대로 기본 계획개념을 세우고 기존의 건축적 패턴 어휘들의 연구에서 그 요소들을 차용하였다. 이들을 종합하여 앞으로의 제주도 현대건축에 지역성을 적용할 때에 가능한 계획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표 6-1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의 현대적 적용계획요소

구분	계획요소 /기본계획개념	구성요소	계획내용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동 (복합건물) 	건물의 정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에 접해서 건물을 세우도록 한다. • 건물의 정면을 가로에 형태에 맞추어 약간 가지런하지 않은 각도로 해서 나란히 세워 간다.
	<p>건물의 배치는 단독 건물보다는 여러 기능을 지닌 건물로 분리하여 배치한다. 그래서 집안으로 직접 들어 오는 바람을 최소화하고 외부 공간에서의 작업도 용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요감을 형성한다.</p>	주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형태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 건물의 정면현관은 주요 접근로에서 비교적 쉽게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 식별하기 쉬운 대담한 형태로 구성한다.
		동선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건물, 작은 건물의 집합체에서 단계적으로 연속적인 공간을 통과, 일정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계획한다. • 각 영역에는 입구 표시를 해서 통과할 때마다 더 작은 영역으로 들어갈 있게 한다. • 행선지에 쉽게 갈 수 있어야 한다.
		주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이 되는 건물을 중앙에 배치, 주요건물을 형성한다. • 주요 건물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대지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건축물은 현재 가장 불건전한 지역에 세우도록 하여 만족스러운 옥외공간을 형성한다.
		남향의 옥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은 항상 옥외공간의 북측에 배치, 그 공간이 항상 남향에 위치하도록 한다. • 건물과 양지바른 옥외 사이에 넓은 그늘의 지대를 남기지 않도록 한다.
		건물의 채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자연적인 사회생활집단에 거의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을 몇 개의 동으로 분할해 간다. • 각 동은 될 수 있는대로 좁고 길게(짧은 쪽을 7.5m이하로)한다.

옥내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의 형성 • 대청 • 안방 • 기타침실 • 부엌 (퇴) 	공동영역 (대청,마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회집단마다 유일한 공동구역을 설치한다. • 집단이 점유하는 공간전체의 중심위치에 공동영역을 배치, 건물의 출입에 쓰이는 통로가 공동구역에 접하도록 한다.
	구성방식 커의 형성	내부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한 낭하와 통로를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공적인 방과 공동실을 이동하거나 집합하는 데에 이용한다. 즉 공동실을 연쇄나 순환형으로 배치, 방에서 방으로 다닐 수 있게 한다. • 사실(私室)에서 직접 공적인 방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 • 방에서 방으로의 옥내이동에는 여유를 주어서 큰 창문을 바라보면서 집을 돌아 다닐 수 있게 넓고 여유있는 순환통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적절한 커를 형성함으로써 바람이 주실로 직접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되, 여름에는 통풍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므로 폐쇄적 개념의 커가 아닌 개방적, 반개방적 개념의 커를 형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지붕이 있거나, 반개(半開)의 벽체를 갖춘 공간, 혹은 테라스 정도의 반외부 공간을 만든다.		
		랑하(廊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게하고, 방과 같은 구조로 한다. • 형태는 여유가 있게 하고, 항상 충분한 빛이 들어오게 한다. • 벽면전체에 걸쳐 창이 있어야 훌륭한 낭하와 통로가 된다.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각 구성원, 성인에게는 자신만의 방을 부여하도록 한다. • 최소규모는 책상, 책장과 커튼이 있는 알코브 정도로 한다. • 최대의 규모는 침대의 최소주택, 노인의 소주택 정도로 한다. • 가장 끝부분에 배치한다.(공용실로부터 되도록 멀리)
	어린이의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의 작은 영역을 배치, 주택의 안쪽에 격리시켜 군상배치로부터 유희 공간이 가로를 향해 연속적으로 형성되게 한다. • 가족 공용실에 접해 있고 구역의 한쪽을 지나서 가로에 이르게 한다. 	

옥내공간		어린이의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문 또는 현관실을 지나서 옥외실이 있도록 계획한다. • 가로와 연결되어 있으나 지붕이 있고 비가 올 때도 놀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옥외공간을 마련한다.
		실내 채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방은 남쪽을 따라 배치, 동서방향으로 길게 건물 배치하여 동남이나 서남 햇볕이 들어 오도록 한다.
		동측취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을 자는 곳은 동향으로 면하게 한다.
		대형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장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장소를 옥내에 마련하도록 한다. 굳이 좋은 위치를 차지할 필요는 없다.
매개공간		현관(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구가 명시되고 옥외공간과 옥외공간을 포함하여 옥내외 경계에 걸치고 있는 빛이 가득 찬 방을 설치한다. • 안쪽은 홀이나 객실과 연결되도록 한다.
		테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실을 테라스나 현관을 향해서 개방시킨다. • 낮은 벽으로 보호한다.
옥외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당 (작업공간) • 올래 • 안뒤 • 채전 (퇴) 	주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접근로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식별하기 쉬운 대담한 형태로 구성한다.
		옥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둥, 격자 울타리, 움직이는 캔버스지붕, 앉을 수 있는 경계벽, 막, 생울타리, 건물 자체의 외벽 등 이용하도록 한다.
		정원(마당+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의 전면, 배면에는 정원 설치하지 않는다. • 가로로부터 반쯤 가려지고 반은 노출된 곳, 주택 측면의 위치에 마련한다.
	구성방식 구심적 공간 배치 (마당을 중심으로) 진입공간-마당- 안뒤로 이어지는 공간 구성 활용	입구의 전환 (올래) -올래: 왜곡된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와 주현관 사이에 전환공간을 통하여 가로와 입구를 연결하는 통로를 두도록 한다. • 위요의 변화를 이루는 대문, 조망의 변화에 의해서 전환공간을 설치한다.(빛, 소리, 방향 및 노면의 변화를 가지고 만듦) • 방풍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휘어짐이 필요하다.
			중정(마당)
		<p>단조로운 단순한 골목의 의미를 가진 공간이 아니므로 다양한 공간전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p>	

	진입부에서는 건물 정면이 직접보이지 않도록너무 큰 공간이 되지않게 한다.	중정(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위 건물에는 적어도 2,3개의 문을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잇는 통로가 중정을 지나게 한다. • 중정 한쪽 변 문옆에 옥내와 중정 양쪽을 연결하는 지붕덮인 베란다나 현관을 설치한다.
		공지의 계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공간의 형태의 구성은 그 공간의 자연적인 배면을 형성하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 적어도 그 공간의 한 개구부가 보다 큰 공간을 통할 수 있게 배치하여 배면을 등지고 자연스런 위치를 잡게 되어 보다 큰 원경을 바라 볼 수 있게 한다.
		보행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보행로의 중간부를 부풀게 해서 넓히고 그 단부는 좁게 한다. • 보행로는 위요된 공간이 형성되며, 단지 통과하는 곳만이 아니고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구심적인 가로)
		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정원, 공유지의 일부를 채소밭으로 마련한다. • 반드시 햇빛을 받도록 한다. • 이용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서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 울타리로 둘러싸고 측면에 작업도구를 넣어 두는 소규모 창고를 설치한다.
기단	• 낮은 기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면의 구성에서 선택될 수 있는 요소이다. • 면적인 요소의 해석이 때에 따라서 선적으로, 선+면적, 면+면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선적인 해석은 동일 높이의 건물에서 시각적으로 낮게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전통적인 인식체계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입면, 평면적으로 다양한 해석		

재료	돌, 나무, 기와 등의 절제된 사용으로 시각적 질서를 통일과 조화로 가장 근본적인 디자인 원칙을 지키며, 지면으로부터 지붕 쪽으로 마감의 계층성을 두어서 정연한 재료사용의 질서성을 보인다.	돌(현무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타일, 외장재 등등...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이 잘 드러나는 풍토건축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유용하다.
		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돌등으로 만들어져 외장재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단편적인 쓰임새가 많다. 새로운 재료의 개발과 함께 기존 재료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적인 사용보다는 다른 재료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쓰일 수 있도록 한다.
지붕/천장	깊은 처마와 편평한 지붕면의 음양의 조화	보호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은 경사지거나 볼트형으로 하며 지붕 전체가 보이게 한다. · 일단 서게 되는 입구와 같은 장소에서는 처마 높이를 6ft(1.8m) 에서 6.6ft(2.0m)까지 낮추도록 한다. · 각 건물의 최상층은 단지 지붕을 덮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 지붕에 감싸여지고 있는 것 같이 건축한다.
		천장고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전체에 걸쳐서 서로 개방된 방들 사이에는 연속적으로 천장 높이에 변화를 줘서 다른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상대적인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 공적인 방,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방의 천장은 높게(3.0-3.6m), 사람이 적게 모이는 방은 낮게(2.1-2.7m), 두 사람 이하의 방과 반침의 경우는 매우 낮게 (1.8-2.1m) 계획한다.
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쇄적인 형태(와 개방적인 형태와의 균형) 	반개(半開)의 벽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 트인 개방공간과 독방 같은 폐쇄공간 사이에 합당한 균형을 위해서 실내공간의 벽과 개구부 및 창문을 조정한다. · 각 공간을 방으로 여긴다든가 타방으로 모든 공간을 서로 연결시키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한다. · 완전히 둘러싸인 방도 완전히 연속된 공간도 존재하지는 않도록 한다. · 기둥, 반개된 벽, 현관, 실내창, 미닫이 문, 낮은 창대, 여닫이 문, 앉을 수 있는 벽을 조합해서 활용하여 합당한 균형을 얻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쇄적인 형태(와 개방적인 형태와의 균형) 		

벽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적이거나 내부적인 개방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후벽(thick wal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벽체는 두꺼우며 실질적인 용적, 즉 실제로 사용가능한 공간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 벽체는 두께가 전혀 없는 부재가 되어서는 안되며, 두꺼운 벽체를 어느 곳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벽체와 지붕의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체의 볼륨감은 상대적으로 둔중하게 느낄 수 있으나 벽체와 지붕과의 분리는 지붕의 상징성을 강조한다. • 처마의 깊이와 처마선에서 벽체 상단부 사이의 거리와 이 부분의 재료와 질감이 중요한 관점이 된다. 돌출된 벽체 처마밑 심벽은 회벽(灰壁)으로 대비시켜 지붕의 양적 성질이 독립되어 강조한다.
개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변적 • 배치에 따른 개구부 위치 	실내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이 너무 적어 활기가 없는 듯한 방이나 방안이 의외로 어두운 방들 사이에는 전면에 고정창 유리를 설치한다.
		양면채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방은 적어도 두 면이 옥외공간에서 접하도록 위치하도록 한다. • 두 방향 이상에서부터 자연 채광이 들어올 수 있게 외벽에 창을 설치한다.
	가변적 배치에 따른 개구부 위치	건물의 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또는 두께가 없는 경계면이 아닌 공간적인 지역, 장소, 물체로서 분명히 다룬다. • 뒤편태를 만들어 사람을 멈추어 서게 할 수 있다. • 외주부를 따라 깊이 있는 지붕을 덮인 장소를 마련한다.
		해받이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향의 중정, 정원 또는 안마당에서 가장 양지 바른 건물과 옥외와의 접점을 찾아내어, 해받이 장소의 접점으로 발전시킨다. • 해받이 장소는 바람막이가 되게 배치하도록 한다.
		북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북측면은 가파르지 않게 지상으로 경사진 캐스케이드형으로 해서, 북측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난 햇빛이 건물측면의 지면에 즉각 비치게 한다.

개구부	가로측 개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에의 노출을 기대하는 어느 공지에서도 이를 완전히 개방, 내부를 공개할 수 있는 벽체를 설치한다. • 보행로의 반대측에도 공간활동의 어느 부분을 포함토록 해서, 실제로 통로에 펼쳐지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통로를 걸어갈 때 그 활동을 통해서 가게 한다. • 이런 개구부를 설치하는 방법에는 천장 부분에 레일을 달아서 간단한 합판으로 여닫이 셔터를 만들 수 있으며, 잡아 당겨서 완전히 열거나 밤이 되면 다시 끌어내려서 잠글 수 있다.
	외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층마다 건물의 단부에 현관, 주랑, 아케이드, 발코니, 벽감, 옥외의자, 차양 및 격자 지붕의 방을 설치한다. • 공공 공간이나 가로에 면한 곳에서는 실내로부터 직접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연결 한다.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 현관, 주랑, 테라스를 세울 때는 최소량(1.8m)의 깊이를 잡아야 한다. • 건물 안으로 얼 마만큼 끌어들임으로써 밖으로 돌출되지 않고 건물에서 별도로 분리되지 않게 하면서 부분 적으로 둘러싸이게 한다.
	가로 면한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가로에 면한 건물에는 앉아서 가로를 내다보는 의자를 창가에 설치하는데, 침실이나 자주 통과하는 복도 또는 계단 어딘가에 배치한다. • 지상층에서는 높게 해서 독자성을 유지토록 한다.
	대지에의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단부의 주변에는 일련의 통로, 테라스, 계단을 설치, 건물과 주위의 대지를 연결한다. • 의도적으로 건물과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하여 어디에서 건물이 끝나고 대지가 시작되는지 불명확하게 한다.
	측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 가운데 문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아주 큰방, 현관실은 제외) • 대부분의 방과 작은 방에서는 한 방 모퉁이 가까이에 문을 설치한다.

		측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이 두 개가 될 경우, 각각 방의 한쪽 편 벽에 두도록 한다.
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의 영향을 최소로 하는 적절한 담의 배치 • 제주도 특유의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돌) 	정원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러싸임을 형성, 통과교통의 시야와 소음으로부터 조용한 정원 내부를 보호한다. • 대규모 정원이나 공원이라면 나지막한 관목, 나무, 경사지 같은 것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둘러싸임이 바람직하다. • 정원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둘러싸임을 견고하고 분명히 해야한다. • 매우 작은 정원에서는 건물이나 벽체를 이용해서 둘러싸도록 한다.(생 울타리, 철책만으로는 불충분함)
	<p>바람의 영향을 최소로 하는 적절한 담의 배치</p> <p>제주도 특유의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 wall을 두면 한 면에서의 공기 압력 분포를 변화시켜 개구부를 통한 실내 환기 효과를 크게 증진시킨다. • 각 개구부에는 하나의 fin wall 이 설치되어야 하고, 개구부들의 같은 쪽에 fin wall을 두면 실내 환기 효과가 떨어진다.
	<p>돌(현무암)이라는 재료를 적절히 활용한다.</p> <p>외관상으로 견고한 벽보다는 틈새를 이용하는 벽의 디자인</p>	fin w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 wall은 바람 방향에 대해 45°각도로 설치될 때 실내 환기 효과가 가장 좋고 바람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되면 실내 환기 효과가 거의 없다. • 벽에서 개구부의 위치는 실내로 도입되는 공기량 뿐만 아니라 실내로 도입되는 바람의 초기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 벽체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 개구부를 두면 실내로 도입되는 바람의 방향이 뺄어져서 실 중앙으로 바람이 가지 않게 된다.(벽체 중앙 근처의 공기 압력이 모서리에서보다 더 높기 때문)

<p>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의 영향을 최소로 하는 적절한 담의 배치 • 제주도 특유의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 (돌) 	<p>정원 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러싸임을 형성, 통과교통의 시야와 소음으로부터 조용한 정원 내부를 보호한다. • 대규모 정원이나 공원이라면 나지막한 관목, 나무, 경사지 같은 것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둘러싸임이 바람직하다. • 정원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둘러싸임을 견고하고 분명히 해야한다. • 매우 작은 정원에서는 건물이나 벽체를 이용해서 둘러싸도록 한다.(생 울타리, 철책만으로는 불충분함)
----------	---	-------------	--

참 고 문 헌

<학위논문>

- 송성대, 「한국 도서지방 초옥민가의 지역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영,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석윤,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설계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이상정, 「한국남부해안지역의 지역성에 적용하는 주거건축의 적정계획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양건, 「제주지역 현대 단독 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선영, 「현대건축의 지역성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명복, 「강원도 남부와 경북 북부지역의 겹집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구재오, 「지역기후에 따른 한국 민가의 평면유형 분류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김미령, 「제주도의 기후환경이 민가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신화경, 「제주도 민가의 형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 사회과학연구 9(“96.12) : pp.335-356

- 조성기, 「한국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대한건축학회지 27권112호(“83.6) : pp.26-31
- 허정아, 「현대건축의 지역성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동수,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 지역성 표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단행본>

- 김광연,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 주남철, 『한국의 목조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 1999
- Amos Rapoport,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1985
- Christopher Alexander, 『건축·도시형태론(a pattern language)』, 태림문화사, 1988
-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제주건축 제 2 집-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제주도건축사회, 1992
- ‘99건축문화의 해 제주지역 추진위원회, 『제주의 건축』, 상지문화, 1999
-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 K.Frampton, 정영철, 윤재희 저, 『현대건축사』, 세진사, 1999

<정기간행물>

- “지역건축탐방14-제주(상)”, 『건축사』, 9910
- “지역건축탐방14-제주(하)”, 『건축사』, 9911

ABSTRACT

**A Study on the Locality of Je-ju Island and Its Application to
Contemporary Architecture
-on the basis of investigation of traditional houses-**

**Kang, Yeon-jin
Dept. of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 University**

It is believed very desirable to study the vernacular house styles, and thereby provide base materials that might be applied on the architectural designing attempt of modern houses of today, as the former is generally built in such a simple form as to fulfil the primitive and fundamental human wants in a most direct and candid manner. Besides, even for the only purpose of preserving our traditional heritage of culture, the vernacular housing from which has been cherished long by our forefathers is deserve to be intensively studied and tried to be followed as far as possible by the modern architecture.

The study has endeavored to research and appreciate the traditional architectural designs of the vernacular houses. The process of study is as follows : First, grasping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 of Je-ju island and traditional housing in Je-ju island. Second, Comparison of traditional houses in Jeju island with in other places. Third, understanding the unique factor of traditional housing in Je-ju island. Fourth, study of case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Je-ju island. The last of process, proposal of applicable design factors o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s.

In the conclusion, the main concept is both the creation of spatial layer and the openness and colosure. In layout plan, courtyard, shelters and fence structures can be the factors of composition. Besides, the concept of design is as follows :

- the experience of rhythmical development of space
-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Olae' space
- the application of various and vernacular materials
- the application of relatively high opening ratio and variable opening
- the proper layout and design of stone fence

First of all, it is needed, various interpretation and approach for space. Then various and vernacular architectural languages will be accumulated.